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3 1982년 9월 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September 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이철수씨 무죄

감격의 흐느낌속 배심원들 기립 박수

9년3월만에 벗겨진 진실

(LA지사발) 3일하오8시3분 샌프란시스코 SUPERIOR COURT 21호 법정의 배심원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12명의 배심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배심원석에 착석했다. 로버트·도시판사는 배심원석을 향해 "평결내용이 준비되었는가"라고 물었다. 배심원대표인 스카트존슨은 "준비되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평결메모를 도시판사에게 전네주었다. 도시판사는 그 쪽지를 다시 법정서기에게 넘겨준후 "낭독하라"고 지시했다. 법정서기는 메모쪽지를 펼쳤다. 순간 법정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이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법정서기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NOT GUILTY(무죄)"라고 말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순간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환성을 질렀다. "우리는 이겼다. 이철수 만세!".

미주60만교포의 인권운동 상징이었던 이철수사건의 진실이 만9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이철수무죄가 선언되는 순간 27호 법정은 눈물과 환성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배심원들도 관례를 깨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교포들은 이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라고 다시 외치면서 끌어안고 환성을 질러 법원경찰이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어 이철수후원회 회원들은 법정복도로 나와 애국가를 부르는등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 어쩔줄 몰라했다. 이철수씨의 어머니 이미태씨(49)는 "하느님에게 감사한다"면서 울고만 있었다.

이철수씨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변호사들과 수많은 교포, 후원회관계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국경을 초월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일생을 통해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후 이철수씨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무죄였읍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이철수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토니·세라변호사는 "오늘의 승리는 이철수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철수씨에게 사형수라는 조작된 혐의를 가한 관계자들은 사법정신에 비추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라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담당했던 스튜어드·헬론변호사도 "이번 계기로 미국사법제도의 맹점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수 구명을 주도했던 유재건후원회장은 교양있고 양심있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오늘의 승리는 이철수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준 전체교포와 기타 소수민족의 끊임없는 지지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차이나타운의 엘리스」로 불리우는 이철수사건은 지난 1979년1월19일 재심의 승리로 구명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1980년3월21일 새크라멘토항소법원에서까지 해비어스·코퍼스(인신구속해제명령)를 선언함으로써 무죄의 심증을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하여 상항검찰측은 소수민족컴뮤니티로부터 사건을 기각하라는 맹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기소를 결정했으며, 그동안 4차례의 재판을 연장한후 지난8월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에서 이철수변호인들은 중국인 스티븐·루, 해군선원이었던 샌더슨, 그리고 노박씨부부등 4명의 결정적인 증인을 통해 이철수의 무죄를 변론했다.

그러나 제1사건 무죄는 제2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미 9년3개월을 복역했기 때문에 보석이 가능할 것으로 후원회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드디어 자유를 찾았읍니다』라고 무죄평결의 기쁨을 나타낸 이철수씨.

◆3일밤 교민사상 최초의 극단 "얼"을 탄생시킨 직후 삼페인과 축하케익으로 자축하는 단원들. 왼쪽부터 대표 이장성씨, 신익균씨, 스튜디오를 연습및 연락실로 제공한 장연탁씨, 유석란씨,박성민씨, 장기철씨, 피세영씨, 김상옥씨, 정광호씨, 이광민씨.

연극통한 한·카의 만남

극단 "얼" 탄생,11월 창단공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연극"이란 예술만이 갖고 있는 마력, 그 습관성적인 끌림을 10여년간 되새겨 온 연극인들이 캐나다 이민사상 최초의 극단을 잉태했다. 지난 3일 조각가 장연탁씨의 삼우스튜디오에서 저녁8시부터 새벽1시까지 발기모임을 가진 동호인 10여명은 극단의 이름을 극단「얼」(THEATRE "ALL")이라 명하고, 대표 이장성씨, 총무 이정원씨를 선출했다. 창단공연은 오는 11월중 갖기로 했다.

극단「얼」은 순수 연극단체로 연극인들의 건강한 예술에의 집념을 승화시킴은 물론 한인사회에 간접적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제공, 교민들의 정신·문화 앙양의 기수가 될 것을 목표로 하며, 극예술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캐나다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극을 통한 한국과 캐나다의 만남을 꾀한다.

「얼」단원들은 공연에 대비 연습을 갖는 이외 캐나다연극계의 현황을 연구하며, 서적·레코드등을 통한 전문지식을 넓히는데 힘쓸 예정이다.

캐나다 교민사회에서는 문학, 미술, 사진, 종교, 스포츠등의 단체는 많으나, 연극단체의 결성은 없었고, 북미전체를 통틀어 뉴욕이외에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는 연극단체는 없다.

이날 모인 연극동호인은 한국에서 이미 전문연극인으로서 커다란 활약을 보인 피세영씨, 이광민씨, 김상옥씨외, 장기철씨, 장연탁씨, 신익균씨, 이정원씨, 유석란씨, 김초은씨, 김천추씨, 박성민씨, 정광호씨등.

이중 피세영씨는 동국대 연극과(1회)를 졸업한 이후 한국방송에서 성우, 디스크·자키, 프로듀서로 활약하는 한편, 「실험극장」 동인으로 특히 67년 「맨·오브·라만차」에서 판초역으로 동아연극대상 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날 "전문극단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교민사회가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의 열의를 되새겨 가며 힘써 보겠다. 교민 전체가 극단을 키워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표로 선출된 이장성씨는 "어떤 사회건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어야 예술도 가능하다. 더구나 연극같은 종합예술은 발표까지의 과정이 복잡한만큼 극단의 출범도 다른 어떤 예술단체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짜 연극예술의 멋과 맛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자들의 인간적인 멋과 맛이 결정체로 모여야 한다. 서로 탐구하는 자세로 갈고 닦자"고 말했다.

그는 동국대 영문과 졸업후 미국 오레곤대학에서 연극학 석사학위를 땄고, 73년 토론토에서 총인원 200명 동원의 오페라 춘향전을 연출한 이외 한인회 문화제에서 단막극을 연출한 경력이 있다.

이씨와 더불어 토론토 교민행사의 무대장치·조명들을 도맡아오다시피한 장기철씨는 캐네디언 방송계의 베테랑으로 다년간 CBC 방송에 몸담아왔다. 그는 "교민들이 평소에 표출치 못한 희로애락의 분출구가 되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에트닉예술의 비중이 큰 복합문화사회에서 한국 교유민속 예술을 소개하고, 교민들의 고달픈 이민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싶다"고 피력한 김상옥씨는 서라벌예대 연극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한 사회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예술이 바로 연극이다. 가장 예민한 정서의 반영대, 가장 폭넓은 공감대로서 교민사회의 청량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히는 이광민씨는 연세대 정외과시절 연세대 극단의 주역으로 뛰었고, 졸업후 극단「산하」에서 활약했었다.

"이같은 단원들의 포부나 경력은 극단「얼」이 흥행성,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예술단체를 지향함을 시사해 준다"고 언급한 총무 이정원씨는 극단「얼」의 사실상 산파역. 이날의 [illegible] 모임전 가진 두번의 예비모임을 주관했다.

「얼」의 연락처는 삼우스튜디오, 58 WADE AVE, 전화 537-7630(장연탁), 960-0074 (이장성), 463-7423 (이정원).

공연연습이 있기 까지의 정기모임은 월2회 삼우스튜디오에서 가지며, 회비는 연$100, 학생$50. 차기모임은 오는 17일 창단공연 작품 선정이 있을 예정으로 관심있는 많은 교민들의 극단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외채상환 문제없어"

강재무장관, 한국의 능력강조

제37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총회에 참석차 토론토에 온 강경식재무장관은 6일저녁 "한국경제가 크게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채상환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날 교포 무역인, 본국및 은행현지대표, 차선겸 실협회장등과 홀리데이·인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7월말 현재 미상환외채액은 335억달러에 상환율은 14%로 이것은 70년대초의 외채30억달러에 상환율이 무려 25%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호전된 것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제외채 위기는 최근 맥시코가 거의 파산단계에 직면, 이번 IMF총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강장관은 수출신장율 둔화등 한국경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인했으나, "한국은 문제가 있을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이미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머지않아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공업국대열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 일 보
533-2361

미도파 백화점
46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란 곰 화 장 품
대 리 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
노스욕 한글학교
가을학기안내

아래와 같이 한글학교를 개강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일시 : 1982년9월9일(목) 오후6시 등록 9월16일(목)오후6시 수업
장소 : NORTH MOUNT JUNIOR HIGH SCHOOL
(70 MAXOME AVE.)

❖ 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등 4반으로 분반하여 훌륭한 교사진에 의해 책임지도 합니다.

※등록일 9일 오후6시에 학부형 회의가 있겠읍니다.
모든 학부형은 참석하여 주십시요.

STEELE
CUMMER
FINCH
YONGE
WILLOWDALE
MAXOME
BAYVIEW

노스욕한글학교 교장 이 인 용
학부형 회장 신 영 식

East AsianLibrary
Rm B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시의원선거 앞두고 의론 분분

TTC 급행계획

쉐퍼드 ↔ 스카보로 타운센터, 유니온 ↔ 댄포스×그린우드

메트로와 TTC당국이 구상한 2개의 급행교통 노선(Rapid Transit Line) 신규 건설안이 오는 11월8일의 시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간의 선거유세중 주요 쟁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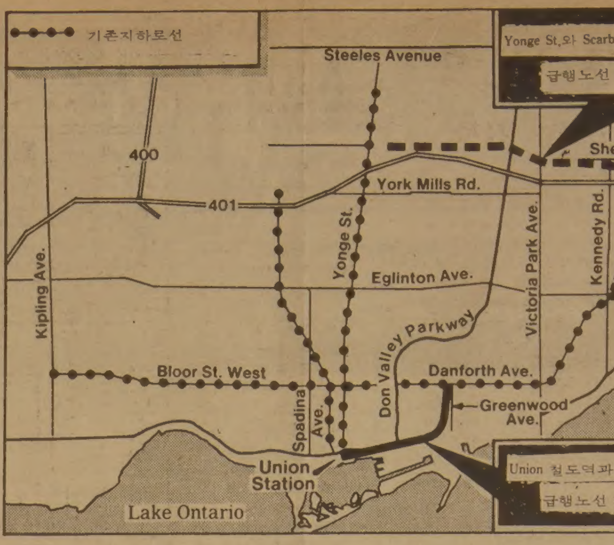
TTC측이 신규 건설하려고 하는 2개의 노선중 하나는 (1)쉐퍼드(Sheppard Ave.)를 따라 영·스트릿(Yonge St.)과 스카브로 타운 센터(Scarborough Town Center)를 잇는 동서노선이고, 또 하나는 (2)유니온(Union)철도역에서 철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블루어·댄포스(Bloor-Danforth) 지하철과 마주치는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건설계획에 따르면 이들 2개선을 건설하는데 드는 총8억달러의 경비중 75%가 주정부보조금에서 충당된다.

TTC관리들의 분석에 의하면 첫번째의 건설로 노스·욕(North York)과 스카보로(Scaborough)지역의 사무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두번째선의 건설로는 영지하철의 블루어 남쪽 구간의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6월 메트로의 기획위원회와 교통위원회는 이와같은 신규라인 건설안을 금년 1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이 확정 통과될 경우 메트로의 교통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새로 당선될 시의원들은 이들 2개의 라인의 건설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또는 정확히 어느 위치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장로교회 창립15주년

김윅스초청 음악선교회

미국 빌리그래함 전도단의 솔로리스트로 활약중인 세계적 복음성가 솔로리스트 김윅스초청 음악선교집회가 오는 11일(토)과 12일(일) 양일간 오후8시부터 한인장로교회(Davenport Rd. & Oakwood)에서 열린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창립 제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집회는 11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영어로, 12일에는 성인들을 위해 한국말로 진행한다.

3살때 6·25전쟁 포화로 실명, 대구고아원에서 9살때 미국으로 입양된 김윅스씨는 그후 휘튼고등학교, 인디아나주립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또한 풀브라이트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기도 한 성악도이다.

◆김윅스 씨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도서판매 권당 10~35¢

노스욕도서관은 일반도서 1만5천권을 오는 11일아침 9시30분부터 하오4시까지 판매한다.

판매장소는 얼·베일스공원(Earl Bales Park: 베더스트 & 쉐퍼드).

권당 10센트~35센트의 싼 가격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야 살 수 있다.

이 책들은 도서관에서 남아 돌아가는 각종 서적이다.

이날 공원내에는 파킹장이 없다.

문의는 667-1060 박승낙(Robert Bak)씨께로.

단체 해외여행 심사규정 강화

(서울)한국정부는 단체해외여행에 대한 심사규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소식통이 8일 전했다.

외무부는 81년3월 정부가 해외여행을 자유화한 이래 일부 한국인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는 여권에 기재된 목적과는 달리 단체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또한 이들중에 외제물건을 지나치게 사거나, 불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늘어나 이와같이 단체여행에 대한 심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당국은 단체해외여행 희망자들의 여행목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톰슨·홀 13일 개막

객석 2800개, 첫 공연 $500표 매진

토론토의 새명물 로이·톰슨·홀(Roy Thomson Hall)이 오는 13일 역사적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단장을 서두르고 있다.

토론토·심포디(지휘 앤드류·데이비스)와 멘델스존합창단(지휘 엘머·이슬러)의 정기 공연장소로 쓰일 로이·톰슨·홀개관기념공연의 티켓값은 기념파티를 포함, $100~$500씩.

1천석의 $500짜리 표는 큰 회사가 무더기로 사가 매진됐고, 역시 1천석의 $250짜리도 이미 다 팔렸다. 단지 $100짜리 800석중 일부가 8일 현재 남아있다.

이날 티켓이 매진될 경우 하루저녁 매표수익은 83만달러에 달한다. CBC-TV와 CBC라디오는 밤8시부터 시작된다.

로이·톰슨·홀 개막기념공연 일정을 살펴보면 14일(화)은 팝송가수 앤·머리와의 공연, 이미 매진됐고, 15일 캐나다·오페리단의 「카프리쵸」공연, 발레리나 카렌·케인, 소프라노 조애나·메이어도 나온다. 16일 17일에는 메조·소프라노 루인·마샬과 바리톤 빅터·브라운이 각각 토론토·심포니와 협연, 18일의 고든·라잇풋 공연도 이미 매진됐다.

18일(토)과 25일(토) 상오11시에는 어린이들이 로이·톰슨·홀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로 어린이들을 위한 브래스밴드, 어린이 오페라단, 합창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라피(Raffi)가 출연한다. 공연 티켓은 $4, $8, $10정도, 온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킹·스트릿×유니버시티의 서남방, 60 Simcoe St. CN타워 부근의 로이·톰슨·홀은 음향시설, 건축미면에서 세계적이다. 완벽한 음향효과를 위해 미국에서 세계최고의 음향기사를 들여왔고, 건축은 캐나다가 자랑하는 대가 아더·에릭슨이 맡았다. 총 2,800석.

토론토의 새 명물로 등장할 로이·톰슨·홀의 금년가을 공연일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9월20일-바이올린의 이즈하크·펄먼과 TS협연.

▲9월22·23일-캐나다 최대의 콘트랄토 모린·포리스터등과 TS협연.

▲9월29·30일-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TS협연.

▲10월5일-실내악단 〈이 무지치〉연주.

▲10월13·14일-캐나다 일류 바이올리니스트 스티븐·스태릭과 TS협연

▲10월19일-비엔나소년합창단 공연

▲10월20·21일-정명훈 지휘, 쥬디·로만 하프연주로 TS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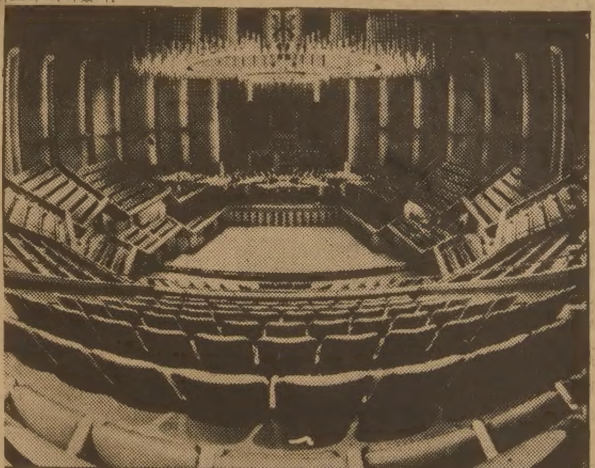
▲11월10일-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주커만 TS협연.

▲11월26일-캐나다 최대의 클래식 기타주자 료다·보이드 연주.

티켓예매는,

The Ticket Centre, Suite 460, 146 Front St. W., 월~금 9시부터 5시까지, 토 9시부터 4시까지이며, 전화주문은 598-3375, 크레딧·카드도 받는다. 당일5시이후 현장 박스오피스에서도 표를 살 수 있다.

티켓 전화문의는 (416)593-7769



◆개막을 수일 앞두고 마지막 손질을 서두르고 있는 로이·톰슨·홀의 내부 전경. 발코니석이 2층으로 돼있다.

에베레스트등반 계획변경

남쪽 루트 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을 가장어려운 남쪽 루트를 통해 등정하려던 수백만달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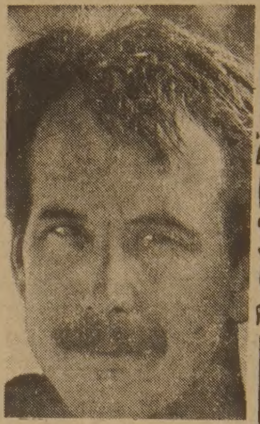
15명의 캐네디언 대원들은 어려운 남쪽 루트대신 쉬운 코스를 택하기로 결정, 네팔정부의 허가를 다시 얻을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에어·캐나다의 재정지원을 받은 캐나다등정대중 대원 블레어·그리피스(CBC사진기자·뱅쿠버)와 안내원, 쉐퍼(Sherpa) 3명이 지난주 눈사태에 묻혀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죽은 쿰부지역은 이제까지 약20명의 각국 등반대원을 죽인 곳이다.

남아있는 대원중 6명은 부상 또는 병이생겨 쉬운 코스를 택하더라도 등반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다.

이제껏 캐네디언중 아무도 토론토 CN타워 높이의 15배가 되는 에베레스트산(8,848미터·29,028피트)을 등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고상돈씨가 5년전인 77년9월15일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했다.

캐나다등반대는 4년간 이번 원정을 계획했다.



◆사망한 블레어·그리피스

교사 채용

미시사가한글학교

미시사가한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교사를 채용한다.

대상과목은 한글·음악·미술·영어·수학 각 약간명이며, 영어·수학은 현재 중고교 교사에 한한다.

구비서류는 자필이력서(한글)1통.

대우는 현지 교사대우에 준하며, 마감은 9월13일까지.

연락은 미시사가한글학교(1439 Aronbridge Mississaga), 전화는 274-6123이다.

新刊

시적정서와 한국적 향취

유인형수상집 〈에드몬톤의 불꽃〉

에드몬톤 교포이며, 캐나다한국문인협회원 유인형씨가 수상집 〈에드몬톤의 불꽃〉을 자비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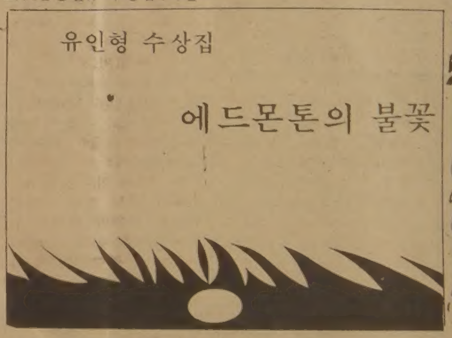
구수한 향토미에 시적 서정성을 가미한 향취있는 수필로 정평이 있는 유씨는 86편의 수필을 3편으로 분류해서 엮었다.

제1편은 "눈속에 피는 꽃"(캐나다생활 묘사), 제2편 "동과 서"(동양적인것과 서구적 풍습·생활습관·사고방식대조), 제3편 "고향향기"(고국시절 묘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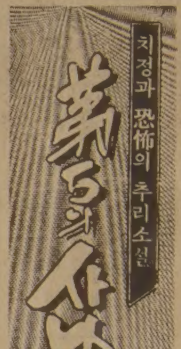
장정(표지)및 목각컷은 토론토의 조각가 장연탁씨가 그렸다.

저자 유씨는 두툼한 이 저서들을 대부분 토론토를 비롯, 에드몬톤, 캘가리, 뱅쿠버, LA등지의 한인계 문화단체들에 기증, 기금 또는 장학금 마련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이다.

문협회원중 이민현지에서 저서를 낸 작가는 수상·시집〈방향감각〉(이석현·박옥선 공저), 수상집〈이민전화〉(김창길), 수상집〈이민낙서〉(여동원), 시집〈숙녀는 전배를 들고〉(손성호), 수상집〈에드몬톤의 불꽃〉(유인형)이다.



◆수상집〈에드몬톤의 불꽃〉표지



<64>

金聖鍾作

어떤 殺人 ⑪

그녀는 電話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려…

그녀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천민아, 너 엄마 없어도 아빠 말 잘듣고 공부 잘 해야된다. 아빠 흥? 엄마 없어도 아빠하고 잘살 수 있지?』

총명한 아이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가 금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싫어! 엄마없으면 싫어! 엄마 없으면 나도 죽어 버릴거야!』

문자는 아들을 와락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다.

『죽는다는 말 해서는 안 돼. 그런말 하는게 아니야. 알았지?』

『그럼엄마는 왜 그런 말을해? 엄마 어디 가?』

『아,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거야.』

아이는 아빠를 닮아 몸이 약하고 영리했다.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안심이 안 되는지 아이는 몇번이나 다짐하고 나서 학교에 갔다.

9시가 지나면서부터 문자는 한곳에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전화통 옆을 맴돌면서 이제나 저제나하고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걸려와서는 안 되는 전화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남편한테서 먼저 전화가 올지, 아니면 모세(毛世)한데서 먼저걸려올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있다. 하나는 모세가 2천만원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알고 즉시 남편에게 비밀을털어놓는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집으로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밖에서 조용히 만나자고 하겠지. 다른 하나는 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도 모세가 남편에게 먼저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이다. 그경우에는 이쪽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아보든가, 새로 협박을 가해오겠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것은 바로 그 후자의 경우였다.

9시35분, 차임 벨 소리가 들려왔다.

朴男 그림

가정부가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었다.

『아, 나야. 아저씨다.』

문자의 귀에도 방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부가 버튼을 눌렀다.

두툼은 후줄그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누이를 바라보는 눈에 핏발이 서있었다.

『어제 집에 못들어갔어. 숙직이라서…전화 안 왔어?』

『아직…』

그녀는 마침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식사 안 하셨죠?』

『먹고 싶지 않아. 코피나 한잔 줘.』

문자는 가정부를 시키지않고 직접 코피를 끓여 가지고 왔다.

오빠와 함께 코피를 마시면서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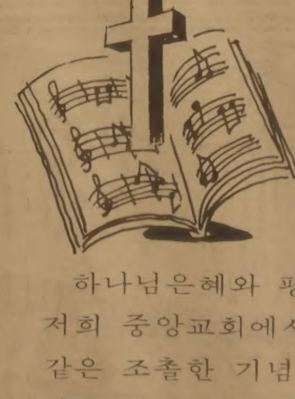
『가정부를 내보내지 그래.』

『전화 오는 거 봐서 내보내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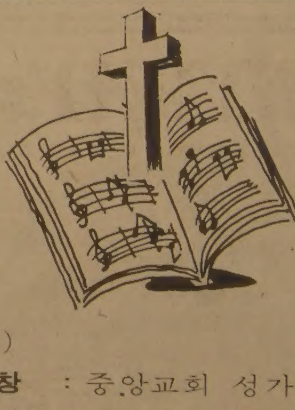
『전화는 틀림없이 올거야. 이상한 눈치 채기 전에 미리 내보내. 시간을 충분히 잡아서 밖이야.』

문자는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가정부를 그녀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2만원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빨래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 좀 나갔다오렴.』



창립10주년 기념음악예배



하나님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창립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촐한 기념음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와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곡 명: Joseph Haydn 작곡
천 지 창 조 (전III부중 I II부)
출연진: Soprano : 이영숙·이은경 합 창 : 중앙교회 성가대
Tenor : 유 진 지 휘 : 이성민
Bass : 양하옥 반 주 : 유선애
일 시: 1982년 9월18일(토) 오후 7 : 30분
장 소: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Bathurst & College)

토론토 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 목사 및 교우일동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한국경제 이렇게 본다"

신상민— 〈동아일보〉경제부 기자

강경식재무장관 일행을 모시고 제37차 IMF(국제통화기금)및 IBRD(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기자에게 한인실업인협회의 차회장등 지면이 있는 본협회의 몇몇 간부는 「기자의 입장에서 한국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왔다.

이같은 질문을 받을때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고, 현상을 본다면 매우 어렵다"는 일반적인 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모처럼 모국에서 온 경제기자에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던졌던 이들에게는 따지고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이 흐리멍텅한 답변이 결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22위이내의 무역국가로서 한국경제는 결정적으로 미국등 선진국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상 한국경제도 예외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금리를 국제수준 이하로 내리고, 세금부담도 대폭 덜어주는 등으로 경기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눈에 띄게 경기가 좋아지는 듯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재작년과 작년 이맘때도 세계적인 경기예측기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려보았지만 그 「내년」이 또 새로운 「내년」이 와도 경기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경기가 풀릴것」이라는 IMF등의 전망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겠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한국경제가 내년에 과연 좋아질 것인지도 따지고 보면 확실치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IMF총회를 취재하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이 밝다는 것을 기자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기업이건 개인의 사업이건,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제경제건간에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돈장수, 곧 은행들이다. 한국, 브라질과 함께 가장 빚이 많은 국가중의 하나인 멕시코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한후 처음 열리는 IMF총회이기에 「돈장수」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큰 관심을 갖고 이번 총회를 지켜보았다.

이번 총회기간중 강경식재무장관은 CITI회장등 국제적인 상업금융기관장들을 만났고, ADM, AFDB등 경제개발 협력기구 총재들의 면담요청이 몰려 전례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국의 증권회사대표가 이번 IMF총회에 처음으로 초청되었고, 강재무장관은 IMF총회 부회장으로 사회를 맡기도 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해 멕시코와 같은 지급불능 사태를 우려하는 견해는 절대로 기우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가별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평점은 최근 들어 매우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산금리(스프레스)도 올들어 0.5%로 선진국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기록해 둘만 하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한국경제」라는 표현이 결코 한국정부의 경제당국자들이 불황을 호도하기 위해 늘어놓는 거짓말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되겠다.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캐나다 식품가 속등
—미국대비—

캐나다경제정책연구회(Canadian Institute for Econcmic Policy)는 1926년부터 1981년까지 56년간의 식품가격 변동 추세를 미국과 캐나다를 비교해 도표로 표시하고, 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도표를 통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1926년부터 1973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식품가격이 비슷한 변동추세를 유지해 왔는데,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에는 그 추세가 급변하여 기간중 미국의 식품가격은 9.4% 하락한데 반하여, 캐나다는 반대로 13.2%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동연구회는 "만약 캐나다가 1981년에도 1977년과 같은 미국의 식품가격 변동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캐나다의 실제 임금은 1977년과 81년사이에 3.7% 떨어진 대신, 2%이상이 올랐을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캐나다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7~79년 사이의 캐나다 달러의 하락이 큰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나 과거에는 환율의 변동이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 일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과 대비한 이러한 추세변동은 캐나다의 인플레이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onvenience store groups, 1982

	B.C.	Prairies	Ontario	Quebec	Atlantic Provinces	Total
Astro Variety	—	—	10	—	—	10
Atlantic Seven	—	—	—	—	16	16
Bantam	—	—	48	—	—	48
Beckers	—	—	649	—	—	649
Bonisoir (Hudon et Deaudelin)	—	—	—	104	—	104
Can' r Bakeries	—	—	14	47	—	61
Convenient Food Mart	—	—	8	—	—	8
Dutch Girl	—	—	4	—	—	4
Le Frigo/Ice Box	—	—	6	36	—	42
Green Gables Fine Foods	—	—	—	—	59	59
Irving	—	—	—	—	58	58
Jug City (Oshawa Foods)	—	—	30	—	—	30
Kwikie Minit Markets	—	—	30	—	—	30
Little Short Stop Stores	—	—	28	—	—	28
Mac's Milk	72	164	427	27	—	690
Magic Mart	—	—	10	—	—	10
Mike's Milk	—	—	59	—	—	59
Min A Mart (Dominion)	—	—	46	—	—	46
Perrette	—	—	—	150	—	150
Picadilly	—	—	8	—	—	8
Pinto (M. Loeb)	—	—	83	28	—	111
Provi-Soir (Provigo)	—	—	—	170	—	170
O Marts (Alberta Grocers)	5	36	—	—	—	41
Red Rooster (Horne & Pitfield)	—	140	—	—	—	140
7-11 (Southland)	59	165	45	—	—	269
Shaw's Dairy Stores	—	—	27	—	—	27
Speedee Mart (Alberta Grocers)	—	24	—	—	—	24
TOTALS	136	529	1,532	562	133	2,892

〈수 상〉

사 색

신 승 숙(Mrs. 백경락)

키 큰 나무들이 둘러선 한적한 우리 동네 앞을 지나노라면 문득 차를 멈추고 걷고 싶다. 바쁘고 삭막해진 가운데 나를 위한 사색을 시간을 갖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런가하면 때로는 백치가 되고 싶어지기도 한다. 바람과 눈과 긴 밤이 있는 계절이 와도 조금은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의 보람이 싱그럽게 돋아 날 수만 있다면….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며 삶을 에워싼 모든 일에 흥미를 가지고 격조있게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어느땐 일손을 잠시 멈추고, 삶의 뜻을 음미해 보기도 한다. 소박하고 겸허하게 안식과 위안을 만들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고.

바쁘게 달리는 이민생활속에 오래 잊혀진 자기를 찾아,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사색에 잠겨였는 자세처럼 인간의 매력을 표현하는 자세가 또 있을까?

맛없는 음식과 낡은 의복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과는 함께 진리를 이야기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이 문득 생각 키운다. 사람은 반찬그릇이 아니고, 옷걸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몸뚱이만 살찌고 정신은 바늘같이 야윈 사람은 경멸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사색은 아름다운 인간의 정신이며, 순결하고 숭고한 생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 온 것도 사색이었으며, 언제나 지루하지 않다.

나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자 원한다.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추구하는 자세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끔 사색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해 전의 일이다. 가족과 함께 기다리던 휴가를 맞아 멀리 시외에 있는 공원으로 캠핑을 갔었다. 부푸는 마음으로 천막을 치고, 장작나무를 배급받아 불을 피우는데, 그날따라 비가 온 후라서 나무들이 젖어서 불을 피우려고 초저녁부터 애를 썼으나, 끝내 모닥불을 피워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고 말았다. 잠자리에서 문득 눈을 뜨고 보니, 불타는 소리가 들리는것 이었다. 놀라서 일어나 나가 보니, 온 세상은 고요히 잠든 가운데 모닥불만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캄캄한 어두운 적막한 산속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었던 무아경!

승화된 감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가의 슬픔을 차분한 마음으로 호젓이 즐길 수 있었던, 감격의 순간을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밤에 느꼈던 차분한 마음의 안식을 지금도 확실히 못잊고 있다.

생활이 너무 틀에 박히고, 경황없이 시간에 쫓기는 각박한 이민생활일수록 의미있는 사색을 통해 자아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하는 기계처럼 평생을 일속에만 파묻혀 살 것인가?

휴일도·오락도 없이 허구헌날 밀리는 일 앞에 쩔쩔매야만 한다면, 진정 올바른 삶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좀 더 가치있는 인생이란 부단히 느낄줄 알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느낌과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유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우리의 삶을 날로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청이라도 다들어 주시는가 싶던 옛날의 하나님을 생각해낸다. 내일 또 일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이밤의 단잠을 하나님께 빌자.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남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꾸짖음이 아니라 남을* 지탄할 때는 없읍니까?

자기 속에 이러한 허맥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본다.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신앙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 말로 비로소 완성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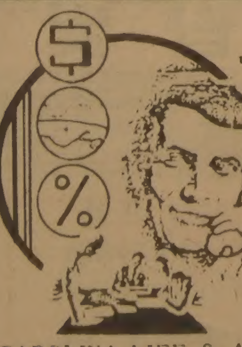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 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1 BOX(48 PKGS) $13.10
술안주 · 다이엘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젊 -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所得稅率 내년부터 引下

근로所得者 5~30%로 事業者도 5~10%신설

控除額확대

法人稅率 대폭내려·讓渡소득稅완화

預金이자 實名10%·無記名30%, 國公債도 과세

상속、住宅減免확대·未成年 7백만원以上조사

財務部、稅制개편·實名去來法案 확정… 定期國會제출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대폭 낮추고 예금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해서는 내년7월1일부터 實名과假名 無記名에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키로했다。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과 金融實名거래에관한 법률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이들 법안은 국회를통과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5·18조치에의한 신축주택등의 양도소득세 경감은국회통과와 정부공포가 끝나는12월말께부터앞당겨시행된다。

4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따르면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은 5인가족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월소득 30만원이하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12·5% ▲31만원~40만원은 7·5% ▲41만원~50만원은 9% ▲1백만원 18·8% ▲3백만원 25·7% ▲5백만원은 23%정도씩줄어든다。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6%(방위세 주민세포함 7·05%)로 그대로두되 최고세율 60%(〃76·5%)를 50%(〃63·7%)로낮추고 세율계급구분도 17단계에 14단계로 줄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세부담경감을위해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월정급여액 3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세율을 현행20%에서 30%로, 30~40만원이하는 10%에서 15%로 인상하고 40~50만원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와함께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대해서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 월소득30만원이하엔 10%, 30만~50만원이하는5%를 각각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했다。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상장법인의 소액투자자 범위는 현재 소유주식 액면가액 1억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종합과세대상을 넓혔다。

법인세는 年소득이 5천만원미만인 公開및 非公開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0%로, 5천만원이상인 기업은 33~38%에서 22%로 세율을 내렸다。비공개된 대기업에대해선 특별히 25%의 세율을 적용키로했다。

또한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이던▲국민주택채권등 강제소화돼온 8개 國公債와▲주택부정기가계예금▲납세저축조합예금 이자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상속세법개정안은 상속세율의 인하와더불어 상속세공제를확대, 집을 가진사람의 경우, 인적공제를 포함 최고 4천만원까지인 주택공제를 6천만원으로 올리고 인정공제도 2천9백8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높였다。세율은 7~60% 15단계에서 10~50% 9단계로 낮췄다。

또 2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부양한 성년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에 대해서만 과세키로했다。

한편 금융거래實名化와 관련, 내년7월1일부터는 實名의 이자및 배당에 대해서 현재와같은 15%(교육세 5%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무기명 또는假名거래에대해서는 35%(교육세포함)의 높은세율을 적용키로했다。

◇稅制개편 주요내용

▲소득세 최고세율인하및 세율구조변경 : 17단계6~60%에서 14단계 6~50%로 인하

▲저소득층 稅額공제확대및 사업소득공제신설 : 근로소득엔 10~20%에서 5~30%로, 사업소득자는 5~10%공제

▲가명이자소득에 대한 고율차등과세 : 실명예금엔 10%, 무기명 가명예금은 30% (교육, 방위, 주민세포함 43·25%) 세율적용

▲소액주주 기준인하 : 자본금의 1%, 주식액면금액 1억원에서 자본금 1%, 주식액면금액 3천만원으로

▲이자배당 非課稅 범위축소 : 국민주택채권, 지하철공채등 8개 국공채와 우대특별 정기가계예금 이자등에도 과세

▲相續稅率인하 : 15단계 7~6%에서 9단계 10~15%로 인하

▲상속세 공제액인상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인상및 자녀공제신설, 인적공제를 2천9백80만원서 5천만원으로, 주택공제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여세율도인하 : 14단계7~67%(방위세포함80·4%)서 11단계10~60%(72%)로인하

▲주택상속 감면범위 확대 : 2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을때와 5년이상 부모부양한 자녀가 주택상속받을때는 주택가격 10%에만 과세

▲法人稅率 대폭 인하 : 22~38%에서 20~25%로인하

▲배당세액 공제축소 : 5~15%서2~5%로

▲紙上배당세 완화 : 배당가능 이익의 50%에서 배당가능이익의 50%와 자본금의5%중 많은금액을 공제

▲양도소득세 완화 : 신축주택매입에 1년6개월간 5% 적용, 양도차액 산출기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통일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화는 자금출처조사 : 미성년자명으로 7백만원이상 실명화하면 자금출처조사

▲무기명 인출에도 과징금 : 83년7월1일이후 실명화 혹은 무기명인출엔 5% 과징금

非常召集 체계强化 總務處, 各部處시달

總務處는 4일 최근 실시한 공무원非常소집결과 아직도 개선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각부처는 공무원비상소집체계를 재정비강화, 돌발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시달했다。

總務處는 비상연락망의 정비가 불량하고 비상소집근무요령들이 미숙하며 비상소집 발령전파가 지연되고 있으며 각 담당실의 통신수단이 부족하다는것등이 이번 비상소집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은 이에따른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關東대학살의 寃魂 屍身이라도 찾을까

59年만에 女教師가 蠻行地발견 두곳선못찾고 세군데 더파기로

【東京4日=宋孝燮特派員】60년동안 강언덕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일제의 만행을 캐고 있다。關東大지진때 일본이 저지른 「在日한국인학살의 史實」을일본사람의 손으로 발굴하고 있는것이다。1923년 9월1일 상오 11시58분。東京을 비롯한 시즈오까(靜岡)등 關東지방에 강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이 지방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했다。천재지변의 수라장속에서『한국사람이 우물에 독약을넣고 방화와 폭동을 일으키려한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면서 일본군 관민이 일체가되어 在日동포 6천여명을 죽창으로 찌르고 엽총으로 쏘아 시신을 불태웠다。

그가운데 에서도 東京의 변두리인 아라까와(荒川)강 언덕에서 한국인 1백여명을 기관총으로 쏘아 떼죽음시켜 파묻었던 사실이 한일본인 국민학교선생의 노력으로 근년에알려져 속죄의삽질이 시작된것이다。발굴장소는 東京都墨田區 八広六丁目의 아라까와강언덕。이곳에서는 일제가 저지른 狂氣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그유골을 파내고 원혼의 위령제를 지냈다。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동안 합장하고있는 노파와 악몽같은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들로 발굴장소는 붐썩거렸다。

70세된 마쓰무라(松村)할아버지는『나는 그때 소학교5학년이었다。조선사람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말을듣고 무서웠으며 조선인을 학살하는것이 당연한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사실을 듣고보니 죄없는 사람을 마구 때리고 죽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독백했다。

속죄의 발굴작업이 시작된계기는 東京都 墨田區에 있는 이요(伊與)국민학교 여선생인 기누다(絹田幸恵·51세)씨가 향토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위해 아라까와강 주변의 역사를 조사하던중 關東대지진때 무고하게 한국사람들이 참살되어 강언덕에 묻혀졌다는 사실을 마을 촌로들로 부터 듣고 충격을 받은데서 비롯되었다。

기누다 여선생은 억울하게죽어간 在日 한국인의 유해를 하루빨리 발견하고 위령제를 지내주어 강언덕을 헤매는 원혼을 달래주는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동분서주끝에 지난 5월「關東대지진 한국인학살 유해 발굴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인 立教대학의 야마다(山田昭次)교수를 비롯한 文人과 주민 80여명으로 이위원회는 구성 됐다。「關東대지진 한국인학살유해발굴 준비위원회」는 1일아라까와강 언덕에서 3백여명이 모여 위령제를 지내고 시굴에 착수, 2일부터 본격적발굴작업에 나섰다。이위원회는 건설성과 협의하여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넓이15평방m 깊이5m크기로 세군데를 팔 계획이며 3일까지 두군데를 팠으나 유해를 아직 발견치 못했다。

關東대지진때 한국인학살을 목격한 이고장 토박이노인 아사오까씨(淺江·80)와 사까이씨(坂井松吉·77세)의 증언에 따라 측량기 2대를 동원, 유해가 파묻혔던곳으로 예견되는 세군데를지정, 3일까지 두군데를팠다。

한 물건이 나올때면 혹시 유해가 아닌가 하고 몰려 깨끗이 씻어 요꼬하마(橫濱)대학의 오까모도(江本勇)교수의 감정을 몇번이나 받았으나 허사였다。발굴 마지막날인 4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통곡이나 한듯 구슬비가 내려 발굴을 6일로 미뤘다。

아사오까할아버지는『關東대지진당시 10여명의 한국사람이 군복을 입은 사람이 끌고와 몽둥이로 때리고 철사로 묶어 일본도로 목을 친뒤 시체를 며칠두었다가 한구덩이에 묻었다』고 증언했다。사까이씨도『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지만 80~1백여명의 한국인이 이곳에서 기관총으로 학살되어 묻혀졌다』고 말하고『한국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넣고 폭동을 일으키려한다는 뜬소문으로 많은 한국사람이 희생된것은 오래오래 두고 일본사람이 한국에 갚아야할 빚』이라고 참회했다。

蘇소식통 "브레즈네프 12월隱退"

◇브레즈네프

【모스크바AP聯合=本社】소련정부소식통들은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75)가 소련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하여 오는12월중 은퇴할것이라고말했다。또 일부소련관리들은 브레즈네프의 은퇴발표가 다음달중에 있을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이 사실인지아니면 관측기구인지는 알수없으나 소련내부사정에대해 언급을 거부해온 소련관리들이 서방기자들에게 이같은 소문을 퍼뜨리고있다는것은 이례적인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소련 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가 재임 18년동안 소련의 군사력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영웅으로서 각별한 영예속에 은퇴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브레즈네프가 은퇴할 경우 그는 재직중 은퇴하는 최초의 소련지도자가 되는데 그의 전임자들은 모두 재직중 사망했거나 축출됐다。

한편 서방의 소련문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문들이 前KGB(소련비밀경찰)의장 안드로포프를 포함한 정치국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브레즈네프 축출 캠페인의 하나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蘇、西方7國과電話통신 中斷 技術的인이유로

【모스크바AP聯合=本社】소련은 이달부터 일본등 벨기에, 미국, 서독및 기타 7개서방국가들과의 자동전화송수신업무를 중단했음이 4일 밝혀졌다。그러나 소련당국은 서방국가들과의 이같은 전화업무중단이「기술적인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곳 관측통들은 소련당국이 서방문화와 정보의對蘇유입을우려, 이들국가들과의전화연결을 통제하고있다고 전했다。

殺人누명 在美동포 李喆洙씨 無罪評決

9年餘복역…再審

차이너타운「第1사건」에… 獄中「第2사건」도 내달再審

◇李喆洙씨

【샌프란시스코=邊鴻鎭기자】살인누명을 쓰고 9년3개월째 복역중이던 재미동포 李喆洙씨(29)가 재심에서 무죄評決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12인 배심원은 3일 하오8시 李씨가 지난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너타운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이른바 제1사건 전부분에 무죄를 평결한 것이다。

60만 재미동포 인권운동의 상징이자「차이너 타운의 엘리스」라고 미국신문들이 표현해온 李喆洙씨 사건은 지난79년 1월 재심에 들어가 구명의 계기를 마련한데 이어 80년3월 새크라멘토州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명령, 4차례의 재판을 계속한끝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李씨는 제1사건에서 무죄평결을 받음에따라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 동료죄수를 칼로찔러죽인 사건도 오는10월2일 재심을받게 되는데 변호인들은 보석이될 것으로 확신하고있다。

제2사건으로 불리는 李씨의 옥중살인은 77년10월8일 교도소내 갱들 싸움에 말려들어 동료죄수를 칼로찔러죽인 사건으로 사형선고를받아 李씨는 샌퀜틴교도소에서복역해왔다。

새 監査院長에 鄭喜澤씨 任命 張慶宇씨 議員승계

정부는 李漢基감사원장의 停年퇴임에 따라 後任감사원장서리에 鄭喜澤의원(民正黨전국구)을 5일字로 임명했다。

헌법73條에 의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任期는 4년이다。

한편 鄭의원의 감사원장서리 임명으로 의원직이 自動喪失됨에 따라 民正黨전국구의원 추천순위 65번인 張慶宇후보(黨대표위원보좌역)가 議員職을 承繼하게된다。

油槽船등 4척擊破 이라크軍、페르시아灣서

【베이루트AP聯合=本社】이라크軍은 4일 페르시아만에서 2척의 유조선을 포함한 4척의 민간선박을 파괴했다고 이라크의 INA통신이 이날보도했다。

이통신은 이라크軍대변인의 발표를인용, 이라크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수출기지인 하르그島에 접근하는 2척의 유조선과 반다르·호메이니港에 정박중인 2척의 화물선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베긴、對美 초강경 新中東平和案 레이건과對決태세

【텔아비브AP聯合】메나헴·베긴 이스라엘총리는 레이건美대통령이 1일 내놓은 중동평화안과 관련, 레이건대통령과 정면적인 대결태세를 갖추고있다。

베긴총리는 2일 이스라엘 북부 나하리아에서 캐스퍼 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회담,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메시지를 와인버거장관에게 전달하고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정부가 있다면 이는『그 국민을 배반하는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3시간동안의 특별각의후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레이건대통령의 제안은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 이끄는 팔레스타인국가를 이스라엘 점령지역인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 세우기위한 처방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中共의 鄧체제 軍部 전폭지지

【北京AP聯合】중공의 군사지도자들은 개최중인 중공당제12기 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서 黨부주석 鄧小平이 이끄는 현정부에 대해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관영 신화사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신화사통신은 鄧小平지도체제에 지지를 표시한 군사지도자들 가운데 중공군총참모장 楊得志、국방상 耿飇、瀋陽軍區사령원 李德生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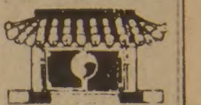
戰場과 후방은 완전히 단절 될수 없다。총력전의 개념은 그내용이 다소 달라도 예부터 있어왔다。창·칼과 총을 들고 여인네들이 전투일선에 직접 뛰어든 일은 세계戰史에서 극히 드물다。그렇다고 여자들은「안전한 후방」에서 조바심과 공포에 떨고있지만은 않았다。그例를 옛아시아、남미、아프리카 부족들의 전투무용에서 찾아 볼수있다。춤과 노래를 통해 여자들은 전선의 남자들과 연결 되었다。▼힌두우시의 아피르族여자들은 남성들이 원정전투에 나간사이에 마을에 남아 전투무용을 했다고 한다。그들은 戰士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믿었다。우연하게도 南美의 지바르族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전쟁이 일어나면 매일밤 일정한 곳에 모여 달팽이 껍질로 만든 방울을 몸에 달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이런행위가 특이한 힘을 발휘할것이라는생각이 있었던것 같다。▼마다가스칼섬엔「미라리 춤」이라는것이 있다。전투가 임박하면 使者가 이 사실을 알려오고 마을여자들은 머리채를 풀어 내리고 이춤을 췄다고 한다。놀라운 일은 미라리춤이 1차대전때 프랑스에서「實演」되었다는 사실이다。1914년 독일군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자、한 지방의 여자들이 프랑스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춤을 끌어냈다(카네티著「군중과 權力」에서)。우리민속무인 강강술래서도 앞에본「후방정신」을 그려볼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원무형식인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당시、李忠武公에 의해 크게 활용된것으로 전해진다。왜군에게 우리 군대의 위세를 보이고 적군의 상륙을 감시 하기 위해 춤과노래로 기세를 올렸다。國難극복의 의지를 북돋고 민심통일에도 효과가 컸었다。武運과 승전을 비는 전투무용이라고해도 별로 이의를 달까닭이 없을줄 안다。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여자들의「美容」은「美·勇」으로 승화됨을 알수있다。▼현대의 총력국방은 여성에게 간접적인 전투무용의 형식보다「직접 참여」를 요구한다。娘子軍의 발을 디딜 터전이 날로 넓어간다。軍事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여성 특유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불어나기 때문이다。내일로 우리 여군은 창설 32돌을 맞는다。6·25戰場에서 여자 의용군으로 탄생、실전에도 참가하여 용맹을 날렸던 여군은 빠른 성장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성숙한 모습과 勢를 과시하고 있다。

社会漫評

즐거운 소식도 있긴 있구나…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建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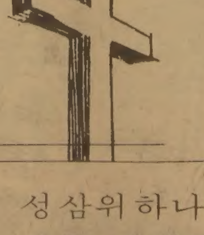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 취임예배

성삼위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에서는 새로이 하나님의 종의사역을 감당케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식을 거행코저 하오니 함께 오셔서 저희들의 임직에 격려해 주시며 아울러 축하해 주심을 바라와 다음과 같이 초청 합니다.

다 음

장로장립 : 김상도 집사
권사취임 : 정보섭 집사. 구정옥 집사
정을수 집사. 장제일 집사
장 소 :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7 GREPNA AVE. TORONTO
(Victoria Pk. Ave. & Lawrence Ave.)
일 시 : 1982년9월19일(주일)
오후5시 : 예식 • 오후6시30분 : 축하연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당회장 김경진목사 및 교우일동

「實名」보완 經濟활성化

稅制개편과 實名거래法案의 背景

稅收결함 예산 節減으로 극복을

實名化충격에 오른 金값·商街점포값 原狀복귀努力해야

직접세跌蹉、간접세 補塡땐 改惡

요란했던 예고편에 비하면 맹렬한기세가 한풀꺾인 느낌이다。6·28조치와 7·3조처가 발표된후 2개월여의産苦끝에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실명거래를 뒷받침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마련된 稅制개편요강이 얼굴을 내밀었다。

금융거래에 관한법률(안)은 일부 경제 관료의 이상론에 民正黨의신중론을 접목시켜 만들어낸 것。애당초 재무부가 발표한 실명화안(7·3조치)은 속전속결주의를 택했다。83년7월1일이후는 모든 금융자산을 실명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명화하지않은 금융자산은 벌칙으로 다스리려했다。또 실명화조치와 아울러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려했다。

그러나 재무부의 실명화안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통화는 건잡을수없이 늘어나는데 예금증가는 크게 둔화되고 게다가 일부 부동산·금·달러·골동품、골프장멤버십등에 실물투기 조짐이 일어나기시작했다。

民正黨은 이같은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재무부의 고압적속결주의를 후퇴시키고 금융실명거래에관한 법률(안)의 골격을 만들었다。

새로마련된실명화법(안)은 내년1월1일부터 신규금융거래는 모두 실명화하고 실명화를 촉진시키기위해 가명에서 실명으로 바꾸는 금융자산의 출처는 일체불문에붙이기로했다。다만 미성년자명의로 실명화하는 경우에는 7백만원까지만 불문에 붙이고 나머지는 자금출처를조사키로했다。실명화를 기화로 위장상속을 막기위한 조치인듯싶다。

정부는 또 실명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세무행정능력이 갖추어질때 까지 담분간 연기토록하고 그대신 가명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차등분리과세를하여 실명화를 유도키로 했다。재무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실명예금에 대해서는 16.75~17.75%의 세금이 부과되나 무기명및 가명예금에 대해서는 43.25%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시리되어있다。이쯤되면 요즈음의 분위기로 미루어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실명화를 하지않을 수 없을성 싶다。

다만 실명화법은 가명또는 무기명금융자산을 실명자산으로 끌어내는데 주안을두나머지 자금출처를 불문에붙임으로써 성변층의이득으로 실명화할경우 상속세와증여세의 포탈을 합법화하는 소지를 남길수있다는점을 유념해야할것같다。

또한 당초의 충격적방법에의한 실명화방안은 크게후퇴하여 단계적 유도적인방법으로 실명화를 유도하고있지만 국민경제에대한 충격은 아직 가라앉지않고있다。

이를테면 7·3조치이후 뛰어올라버린금값·달러값、상가점포가격등은7·3조치가 크게 완화된 지금에도 원상복귀할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그때문에 경제시책은충격조치를 삼가야 한다는게 불문율로 되어있다。이제7·3조치이전의 단계적실명화계획(6·23세제개혁안)을 따르고 있는만큼 정부와 국민모두가 합심해서 깜짝놀라 뛰어올라버린 실물투기대상들을 원상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해야하겠다。

재무부는 실명화를 뒷받침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금융실명 거래에관한법률(안)과 더불어 稅制개편요강(안)을 내놓았다。

재무부는 이미 지난 6월23일 실명거래제의 단계적실시와 경기진작을 겨냥한 세제개혁안을 내놓은바 있다。그러나 6·28및 7·3조치와 더불어 6·23개혁안이백지화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제2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재무부가 제2의 세제개혁안을 막 완성하려할즈음 실명거래에 관한 民正黨의 보완대책이 제시되어 7·3조치가 크게후퇴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재무부는 다시한번 앵글을바꾸어 제3의 세제개혁안을만들어 이번에 발표하게된것。대체로 최종발표된 세제개혁안은 그내용이나 방향이 6·23개혁안과 맥락을 같이한다。그런의미에서 세제당국은물론 국민경제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은셈이다。

세제개혁안은 우선 실명화를 유도하기위해 무기명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예금보다 훨씬높은 세금을 매겨놓고 이와아울러 실명노출에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율도 크게낮추었다。또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기위해 법인세와소득세율을 대폭인하하고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체질의건실화를 유도하기위해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했다。

세제당국은 세율인하및 지상배당의 완화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조치라고설명하고있다。

세제개혁안은 이밖에도 조세감면대상을 대폭축소하고 양도소득세액계산기준을 싯가기준으로 통일하는등 稅政정상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시도했다。

특히 6·28조치때부터 백지화했던 5·18경기활성화대책을 다시살려 신축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크게인하했다。

9·4稅制개혁안이 법인세·소득세율을 대폭내리기로 한것은 매우 대담한 시도라해도 좋을성싶다。稅法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만들어진법이다。다만 세금을 받되 어떻게 징수하느냐가 문제이겠지만 기본목적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있다。기존세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세법을 만들때 기본구상은모두 세수확보에서 출발하게된다。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흔히 稅制개혁을 세재개악이라 부른다。내세수 명목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결국은세금을 증수하는데 귀착되고만다。

그런의미에서 세율을 대폭인하한 9·4세제개혁안은改惡이라는 혹평은 면할수있게되었다。그러나 9·4개혁안이 과거와같은 개악의 불명예를 씻어버리고 진짜 개선이 되기위해서는 몇가지 후속조치가 뒤따라한다。

무엇보다도 세율인하에따른 세수결함에 부응한 예산절감이 뒤따라야한다。예산절감이 없이 무턱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하하고보면세수결함이 생긴만큼 다른데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한다。우리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인하에따라 연간4천여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83년은 2천억원) 여기서 생기는 세수결함은 특별소비세나 부가세등 간접세에서 벌충할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접세는 가난한사람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逆進稅의 성격을 갖고있다。따라서 예산절감방안이 뒤따르지않고 만에 하나라도 직접세결함을 간접세로 보전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9·4개혁안도 개악이되고 만다。

稅制개혁은 稅政이 개선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稅法만 고치고 세무행정은 그대로하면 세법을 고친뜻을살릴수가 없다。우리나라의 납세풍토는 세법보다도 세무행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납세자나 세무서가 모두 불신풍토위에서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받고있기 때문에 자연히 세무행정의 재량의 폭이 넓어진다。세무행정의 재량의 폭이 넓어지면 세법은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되고만다。정부의 입각에서는 실명화가 되면 새로운 세금이 발굴되어 세수가 크게늘어난다고 말하고있지만 크게 기대할것이 못된다。

地下經濟라는 것이 미국이나 소련에도 번창하고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포탈할 길은 많이 있다。그 때문에 세제당국도 실명화에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추계해내지 못하고 있다。만일 실명화에 따른 세원을 찾는다고 새로운 세금 공세를 펴 나간다면 세율을 내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작금의 조세마찰을 가볍게 보면 크게 낭패할 수도 있다。

세제개혁안은 또 저소득층 보호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고소득층에 많은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 특히 중산층에 상대적으로 중과하고있다。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소득 50만원짜리는 8·5%、30만원짜리는 12.5%가 경감되었을 뿐인데 월3백만원짜리는 25·7%나 경감되었다。이밖에도 세제개혁안은 사회정책적인 고려、경제정책적인 시도가 미흡한감을 준다。

이제 우리나라의세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있다。그러나 지난 2개월동안의시행착오를 메울길이 없다。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도의개혁이나 정책의 전환에는 책임을 지는 풍토가 확립되어야하지않을까。【朴炳潤기자】

◇상속세율

현행 과표	세율	개정안 과표	세율
천원		천원	
1,000이하	7%	5,000이하	10%
1,000초과	9	5,000초과	15
3,000	11	25,000	20
5,000	13	50,000	25
7,000	15	80,000	30
10,000	17	120,000	35
13,000	20	200,000	40
19,000	25	350,000	45
25,000	30	500,000	50
35,000	35		
50,000	40		
70,000	45		
100,000	50		
300,000	55		
500,000	60		

◇증여세율

현행 과표	세율	개정안 과표	세율
천원		천원	
500이하	7%	3,000이하	10%
500초과	11	3,000초과	15
1,000	15	6,000	20
3,000	19	10,000	25
5,000	23	15,000	30
7,000	27	22,000	35
10,000	32	30,000	40
13,000	37	40,000	45
19,000	42	60,000	50
25,000	47	120,000	55
35,000	52	200,000	60
50,000	57		
100,000	62		
200,000	67		

◇상속세공제액 인상내용

공제	현행	개정안
기초공제	8백만원	1천만원
배우자공제	1천6백만원	2천만원
연로자공제	1천만원	2백만원
자녀공제	—	5백만원×2人=1천만원
미성년자공제·불구폐질공제	연24만원×20세까지의 연수(1백80만원)	연40만원×20세까지의 연수(5천만원)
합계	2천9백80만원	5천만원
주택상속공제	4천만원(인적공제포함)	6천만원(인적공제포함)
農地 草地 山林地공제	5천만원(인적공제및주택상속공제포함)	7천만원(인적공제및주택상속공제포함)

衝擊막게 신축運用을

經濟4단체 反應

경제계는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6·28및 7·3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한것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되나 실명거래제를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은 현경제여건상 어려움이 없지않다고 지적、경제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신축성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4일 大韓商議 全經聯 貿協 中小企協등 경제4단체는 실명거래제의 실시가 당초안보다 크게 후퇴、상당한문제점들을 제거시키는 방향에서 문제점들이 웬만큼 보완됐으나 아직도 적지않은문제점이 예상되고있다고 지적、시행이전에 최대한의 노력을기울여 비현실적인 요소를제거하고 우리경제에 주름이 가지않도록 운용에 신축성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의 논평요지는 다음과 같다。

▲大韓商議=금융거래실명화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춘것은 현실적 접근으로서 타당하나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면서 누진단계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조정을적게해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것같다。

법인세에있어서 경제계가 배당세액공제액의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오히려 축소된점과 지상배당세의 완화가 미흡한점은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재고됐으면한다。

▲全經聯=실명거래제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것은 그동안 이제도에대한 문제점을제거、상당히 보완하긴했어도 현경제여건상 어려움이 뒤따를것 같다。

이런관점에서 볼때 실명거래제도가 시행되기이전에 가능하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우리경제에 주름살이 가지않도록 해야한다。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차등을 전면 철폐한 것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본시장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며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축소한 것은 기업인의 자기기업에대한 투자가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세제개혁당초의 목적과는 대치된다고 본다。

▲貿協=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각종준비금 확대등 조세면에서의 수출유인책 보강이 없는것이 아쉽다。특정산업에 대한 직접감면제도및 각종 투자준비금제도의 폐지등은 전략산업의 발전과 투자촉진이라는점에서 일시적으로 전면폐지보다는 점차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할것이다。

▲中小企協=세율 인하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재투자가 촉진돼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실명화에 따른 상속세및 증여세의 인적공제액 인상과 세율인하도 적절한 조치다。

鄭喜澤 監査院長서리

오랜法曹생활…후배들엔 氣慨강조

政界에 몸담고있으면서도 오랜 法曹생활이 몸에 밴 때문인지 늘단정한 인상에 每事에 조금도 빈틈이 없다。

일본中央大 법학부를 졸업、일본高文시험 司法科에 합격한후 46년 사법부감찰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그후 서울地檢 高檢검사와 서울高檢 차장검사를 거쳐 61년大檢중앙 수사국장을 끝으로 在野로 물러났었다。

檢事시절 대쪽같은 성품으로 늘 후배검사에게 첫째 氣慨、둘째가 법률지식이라고 충고、說破하기도한 그는 은퇴후에는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1·2期統代 대의원을 지냈다。

이어 5·17후 입법회의 시절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제5공화국出帆에 따른 法制정비에 一翼을 담당、民正黨전국구7번째로 政界에들어섰다。

전임李漢基감사원장후임으로 그가 등용된것은 그동안 官街에 나돌던 소문이 적중한셈。

부인 金英禮여사와의 사이에 아들만 넷。

株價 크게下落

내년부터시행될 정부의 稅制개편안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자 4일 서울證市에는 失望賣物이 쏟아져株價가크게떨어졌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株價는 그동안 계속떨어진데 대한 자율반등현상으로 처음에는 강보합세를보였으나「팔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장세는 전반적인 약세로 돌아섰다。

人事異動

調達廳

〈書記官級〉▲公報擔當官 申健湜 ▲經理課長 [illegible] ▲外資課長 [illegible] ▲物資監査 [illegible] ▲調達廳 [illegible] (4日字)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說

「제2의 生命」을 위하여 —보름만의 生還이 생각하게 하는것

「어둠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을뿐」이었다고한다。허기지고 추위에 지쳐 『한겨울 눈밭속에 알몸으로 있는것같았고、눈을감으면 갖가지 음식생각이 나고 가족들이 옆에 있는것같은 환각이 생겼다』고했다。

물이 빠진듯하면 희망을 갖고、다시 차오를 때면 절망적인 생각을 했다。처음엔 소나무갱목의 껍질을 벗겨 먹었지만、나중엔 그것도 없어서 물로 연명했다고한다。

지하 2백50여m의 탄광 막장에 갇힌지 보름만에、정확하게 말해서 열나흘9시간43분만에 살아나온 네 광부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눈물을 흘리지않은 사람은 드물것이다。

이들이 태백탄광 막장에 갇힌 것은 지난달 20일 아침 7시。살아나온 이들은 양볼이 움푹들어가 광대뼈가 앙상하고、흙을 파내느라 손톱이 모두 닳아버렸다。

세상이 탄광막장에 갇힌 이들을 잊고있었던 보름동안 지하2백50여m의 암흑천지에서 4명은 기적의 투쟁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추운 겨울에 밤을 떼우고、1년 사철 따뜻한 밥을 지어먹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처절한 보름동안을 참회와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일이다。

『참회』란 한해 1천8백54만톤의 연탄(81년도)을 쓰고있는 우리가 한해평균 광부 49·6명이 죽고 7백66명이 부상(80년현재)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선 이번 태백탄광사고만 보더라도 사고가 났을경우의 구조체제나 평소의 안전체제에 기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막장위쪽 40m에는 대피소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빵 한조각、물 한컵의 비상식량도、담요 한장의 비상대비도 없었다。대피소라면 당연히 통신수단이 있어야 했을 것이었다。

게다가 양수기가 모자라 15대를 근처 탄광에서 빌어오는데 시간이 걸렸고、그나마 고장이 잦아 8대밖에 몸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지나가 폭우가 쏟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보름만에 4명이 살아나왔다는 기록은 평소에 허술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름동안 파이프를 통해 밥밀에 공기를 넣어준것은 다행한 일이었으나 대피소에 전화 하나만 있었더해도 작업은 보다순조롭지않았을까생각된다。

벌써 『죽은것으로 생각하고 장례식준비를 했다』는 가족의 말에서 그런 상황을 짐작할수 있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태백탄광의 기적은 하나의 값비싼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긴것도 사실이다。구조작업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탄광에서뿐아니라 이사회모든분야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하는 체험이었다。

생명의 존엄성에대한 새삼스러운감동을 보다깊이 간직하자는것이다。

결국 이번 태백탄광의 기적은 가스폭발이나 질식사고와 달리 가장 초보적이고 단순한 문젯점을 노출시켰다고 할수있다。

한해 8백15명남짓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탄광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인다는것은 상당한 투자와 경영의 합리화라는 보다 큰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선 비상식량과 비상침구、그리고 전화선을 갖추고 어디에서나 사고가 났을경우 대피소에 접근할수있도록 시설을 해둬야한다。

양수기같은 기본적인구조장비는 탄광운영에 초보적인요건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광산에 걸쳐 기초적인 구조장비와 대피소의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의 광산、특히 탄광운영이 어떤제도라는 철부경영 체제에서 오는 문제등 많은 숙제를 안고있다。

그러나 대피소의 정비나 기본 구조장비를 갖추는것은 안전행정의 초보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할것이다。

광산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은 큰 돈 들지않고도 갖출수있는안전시설이나 대책을 한시 바삐 서둘러야된다。

『누군지 모르지만 따뜻한 손이 와닿는 것을 느끼는순간 용상에 오른는듯한 기분이 들고、다시 태어난듯 살았음을 실감했다』는 갈등적인 기적의 순간을 우리는 잊지말고 새겨야할것이다。

보름동안의 끈질긴 구조작업에얻은 기적의 보람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새삼스런 깨달음으로써 길이 간직되기를 바라는것이다。

마찰없는 經濟活性化 —稅制改革과 實名거래法案에 바람

財務部는 4일 6·28및 7·3조치로 밝힌 稅制改革과 金融資産實名制실시에 필요한 法律試案의 骨子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現行 17단계로 구분하여 累進稅率을 適用한것을 14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年소득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대한 최고세율 60%를 50%로 大幅 내리기로 하였다。

그 결과 근로소득 인경우 月給與 70만원이하 소득자의 세금부담률은 6.36%(月55만원 소득자)에서 12.6%(月 25만원 소득자)정도 가벼워지게되었다。그러나 月給與 2~3백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감률은 25%를 초과함으로써 上厚下薄현상을 빚어내게된것이다。

이는 최고누진세율을 50%로한다는 큰 줄거리와 대폭적인 稅收감소를 피하려는 고려에서 그리 되었을것으로 생각되나 바로잡아야할 과제를 남기는것으로 보아 마땅하겠다。

다음 法人소득에 대한 稅率은 5천만원이하일 경우엔 公開·非公開의 구분없이 20%의 比例稅率을, 그리고 5천만원이상에 대하여는 公開法人은 22%、非公開法人은 25%로 낮추기로 하였다。이와같은 法人稅부담의 경감은 이미 8월중 정부·여당간에 合意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相續稅와 贈與稅에 있어서도 그 최고累進稅率 각각 60%와 67%를 50%및 60%로 낮추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限度를 높여 금융자산實名化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다。

부동산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은 앞으로 소득자가 원할때에는 실지거래가격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는 內務部가 작성하는 時價표준액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또 금융자산實名化와 관련한 利子소득은 분리과세하되 實名자산에 대한것은 低率과세하고 무기명등에 대하여는 무거운 稅率을 適用하기로 한다는것이다。

다음 금융자산實名化法試案의 骨子를 보면 ①83년 1월부터의 新規分은 모두 實名으로하고 ②금년말이전의 無記名자산을 83년 6월말까지 成年者명의로 實名化하는 경우는 一切 不問에 붙인다。그러나 ③未成年者명의에 대하여는 7백만원을 초과할때 자금出處를 조사하여 出處가 分明치 않은 것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할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설사 成年者명의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하다가 탈세사실이 밝혀진 자금을 추적한 결과、그 금융자산이 實名化된것으로 밝혀졌을때에는 세금추징을 면할수없다는 점이다。이에 관하여는 실시과정에서 당국과 금융자산명의자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稅務당국에 대한 금융자산비밀은 없어지게 된다。그렇기때문에 비슷한 현상은 애초부터 實名으로된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未成年者거나 또는 成年者로서 일정한소득이 없는자(학적보유자등)인 경우는 같은 현상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쳐진 各界의 여론대로 금융자산을 實名으로 하여야한다는 점은 아무도 異論이 없는 터이다。그러나 그런 原則에는 찬성하면서 이를 실시하기위한 구체적대목에서는 만만치않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商工業界가 현재의경제여건에 비추어 實名去來制를 83년부터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이있다고본것같은 경향은 그 한例다。또業界는 中産層이하의세부담이 상대적으로높으며 利子소득분리과세에 比하여 配當소득분리과세법위를 축소한것에도 異議를제기하고있다。輸出진흥을위한 추가고려도 요구하고있으며、中小企業에대한 稅부담경감이 未洽하다고 지적하기도했다。

결론적으로말하여 6·28과 7·3의 두조치는 陰性私債를배제하며、경제活性化를촉진하는것이 그당초의目的이요 名分이었던만큼、이 두과녁을 最少의마찰속에서 최대한으로 具現하도록 해야할 일이다。

政局往來

새稅制개편안…民正은 肯定的평가、民韓선 부정적反應

◆民正、實務회담독촉에냉담한반응

民正黨간부들은 民韓黨측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靑瓦臺3黨대표회담의 후속조치실현을위한 實務者회의 개최를 독촉하고 있는데 대해 冷淡한 표정。

權翊鉉사무총장은 4일 『다른 할일도 많은데 그런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본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고 李相宰사무차장은 『곧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실무자들이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한 반응。

李鍾贊총무는 『民韓黨은 자기네 黨內에 구성되어있는 民主改革특委에 실무자회의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제도적장치를보완한 5공화국 헌법의 어느부분을民主化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反駁했다。

그는 또 『民韓黨은 아직도 非民主化시대에 살고있다는 착각을하고있는 모양』이라며 『靑瓦臺회담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3黨대표나 실무자들이 만나서 논의하는것이지 무턱대고 「民主化」를 논의하자는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民正、訪阿後續대책 마련하기로

民正黨은 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순방에 따른 後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黨과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

民正黨은 이를 위해 6일 아침 全斗煥總裁를 수행했던 金埈成부총리、李範錫외무、金東輝상공부장관등을 당사로 초청、朝餐을 함께하며 巡訪성과에 대한 보고를듣고 黨이 마련할 대책을 협의할 예정。

尹碩淳사무차장은 4일『이번순방성과를외교적、경제적측면에서지원할 수있는 각종 제도적장치를 黨과 국회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면서 『경제협력관계는국회와黨이 정책적뒷받침만하도록할 생각이지만 외교차원에서는 議員外交를 더욱 活性化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없는者」稅부담輕減해소돼야

정부가 4일 발표한 금융實名去來법안과 稅制개편안에대해 民正黨측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民韓黨측은 부정적인 반응。

民正黨의 陳懿鍾정책위의장은 『이번 稅制개편안은 6·28및 7·3조치에대한 民正黨의 보완책이 대라 마련된것으로 高所得層에 대한 세율인하와 균형을 맞추어 低소득층에 대한 稅制[illegible]를 확대한것」이라고 [illegible]했다。

이에 반해 民韓黨의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 『[illegible] 贈與稅와 相續稅의 포탈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자금출처 조사를 거듭 주장。또한 金台植재무위간사는『이번 개편안은 법인세의 대폭인하로 야기된 稅부담의 불공평성을 부분적으로 손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있는者」에 대한 租稅特惠조치보다 「없는者」에 대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시키도록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民韓、조직강화 特委구성 움직임

民韓黨은 그동안 전국지구당을대상으로한 黨務감사와 黨勢감찰등을 마무리짓고 不實지구당을 정비하기위한 組織강화特委를 구성할 움직임。

黨內에서는 조직강화特委구성에 관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強行論과 『자칫하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愼重論이 엇갈리고 있는데 4일현재 強行論이 다수의견으로 대두。

특위가 구성될 경우 심사대상이 될 지구당은 그동안 實査과정에서 1차 不實지구로 판명된 9개 지구당과 위원장이 缺員중인 6개 事故당부가 포함될전망。

그런데 9개不實지구당은 月50만원의 보조대상에서 제외되고있는▲群山·沃溝▲麗水·光陽 ▲鎭川·槐山▲公州·論山▲安東·義城▲聞慶·醴泉▲晋州·三千浦▲昌原·鎭海▲濟州등인데 이중安東·義城지구는지난달부터 보조비가비공식으로 지급되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退任辭서 就任동기·業績回顧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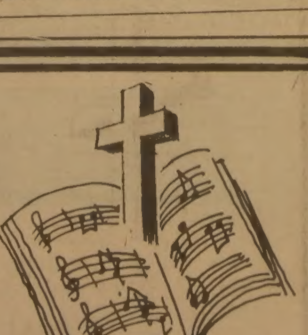
5일로 停年퇴임하는 李漢基감사원장은 4일 감사원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이 감사원장직을맡게된 동기、재직기간동안의 감사원업적회고、당부등의 順으로 장시간 퇴임사를 해 異彩。

2년만에 감사원을 떠나는 그는 『10·26후의 國情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어서 內政에 대한 無經驗을 무릅쓰고 감히 監査의 분야에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었다』고 당시 원장직을 맡게된 동기를 설명。

李원장은 또 『우리의 사회생활과 정치적생애를 용납해주는 곳은 이 지구상에 내조국말고 아무데도 없다』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無條件的인 愛情에서이지、富強하고 살기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난하고 괴롭기때문에 버린다는 그런 理性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투철한 國家觀을당부。

═══ 창립 제10주년 기념 ═══

장로 장립및 권사취임예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창립 제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로장립및 권사취임식을 통해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세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고자 하오니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음

장로장립 : 조진동 집사 이성민 집사

권사취임 : 김주원 집사 조수옥 집사 박묘식 집사

장 소 :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Tor. (Bathurst & College)

일 시 : 1982년 9 월12일(주일)

● 오후 5 시 : 예식(본당) ●

● 오후 6 시30분 : 축하연(친교실)

토론토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 목사 및 교우일동

毛잔재 淸算 實用政治 다져

中共 12全대회 중간決算

◇◇ 지난1일 개막된 中共黨 제12기전국대표대회(12全代)는 첫날 黨주석 鄧小平의 개회선언 및 개막연설과 黨주석 胡耀邦의 정치사업보고를 들은후 2일부터 각분야별 분임토의에 들어갔다. 鄧과 胡의 연설과 보고는 10일동안 계속될 12全대회의 성격과 앞으로의 중공黨의 노선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이번 12全대회가 지향하고 있는 내일을 향한 중공을 살펴본다. ◇◇

鄧小平이나 胡耀邦의 발언요지는 대충 정치이념문제, 경제개발문제, 對外관계등 3가지로 요약할수있다.

먼저 정치이념문제에 있어 과거 毛澤東의「創業精神」에 의존,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해왔던자세를 과감히 탈피, 새로운「사회주

켜올리고 毛澤東을 간접비난했다.

한편 胡耀邦도 3만4천자에달하는정치사업보고에서「黨은교조주의와 개인숭배의속박을 탈피했다」고밝히고 4인방 추방이후 정치 경제 사상등 각분야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에서 완전히 제거될것임을 시사했다.

그런가하면 경제개발부문에 관해서 鄧은 4개현대화를 달성하기위해 중공은「문호개방정책을 계속견지, 외국의기술, 자본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혔으며 胡도『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등 4

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과대한 기본건설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하여 금세기말까지는 공업과 농업의 연간생산을 7천1백억元(3천7백40억달러)에서 2조8천억元(1조4천7백40억달러)로 4배가량 늘

胡耀邦의 정치사업보고는 전반적으로 5년전인11全대회에서 華國鋒이 행했던 보고내용과는 각부문에 서 거의 정반대의 극을 보이고있다.

앞서언급한 文革및 毛의 功過평가문제등 정치이념문제는 물론 경제문제에서도 華는 公有制수호를 강조하고 走資派가 私기업복귀를 획책하고있다고 비난했으나 胡는 시장경제체제가 국가의 중요한 보완요소이며 私기업도 중요한경제요소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고내용의 1백80도 방향전환은 이미 예측되어왔던대로 중공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毛澤東과 文革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鄧小平주도의 명실상부한「實用政治」를 펼쳐나가겠다는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개막첫날부터 鄧小平, 胡耀邦, 趙紫陽체제의 완전한 주도로이루

인사이드

「市場경제」도입 現代化 강력추진

美·蘇·日겨냥 覇權·제국주의비난

華國鋒제거…鄧小平·胡耀邦·趙紫陽체제굳혀

의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鄧과 胡는 모두 이번 대회가 45년에 개최된 7全대회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鄧은 또 劉少奇가 정치사업보고를 제출했던 56년의 8全대회를 인용, 생산수단의 사유제등 사회주의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한 정세를 분석, 전면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키로했던 방향이 옳은것이긴 했지만 그후의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좌절을 겪게했다고 언급함으로써 劉를 치

胡는 또 작년에 열렸던 11기6中全會에서 통과된「건국이래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毛澤東의 功과 過를 분리, 그에대한 개인숭배를 종식시켰던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毛澤東死後 11全대회를 통해 집권했던 華國鋒지도부의 계속된「左傾的오류」를 거론했다.

한편 당기관지 人民日報도 9월1일자에서 11全대회가 文革수습은 성공적으로 행했지만「당시의 주요한 책임있는동지」(華를지칭)가 상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함으로써 毛의지명후계자인 華가 이번대회

개현대화의 달성을위한 중공인민의 自力更生, 刻苦奮鬪, 착실한 전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것은 胡가 4개현대화정책을 열거하면서 과거「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順으로 되어있던 순서를「공업 농업…」의 順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같이 4개현대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것은 11全대회이후 어느정도 농업부문의 생산증가등 현대화작업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뜻한것으로 보인다.

胡는 또 현재의 공업구조 불균형 조정작업에 착

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10억인 중공인구가 금세기말까지는 12억정도에 이를것으로 본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2천3백元(1천2백달러)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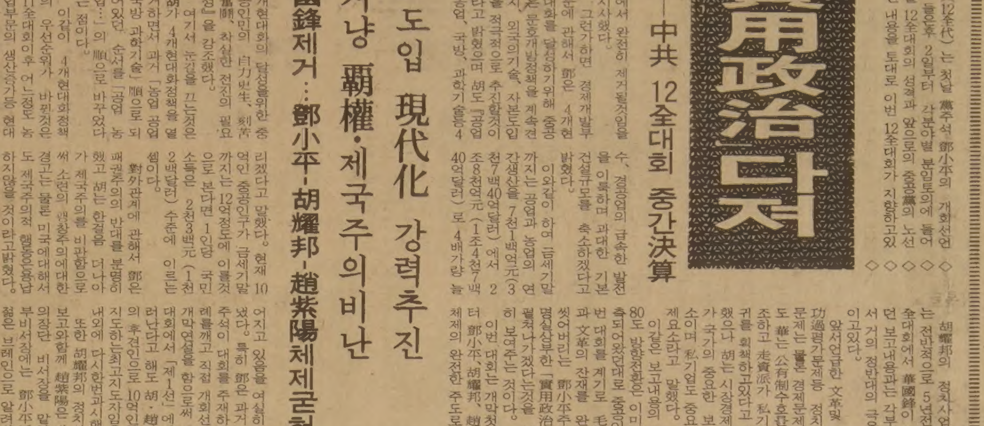
對外관계에 관해서 鄧은 패권주의의 반대를 분명히했고 胡는 한걸음 더나아가 제국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주의에대한 경고는 물론 미국에대해서도 제국주의적 행동을 삼가하지않으면 …

어지고 있음을 여실히드러냈다. 특히 鄧은 과거 黨주석이 대회를 주재하던 전례를깨고 직접 개회선언및 개막연설을 함으로써 이번 대회에서「제1선」에서물러난다고 해도 胡·趙체제의 후견인으로 10억인구를 지도하는최고지도자임을국내외에 다시한번과시했다.

또한 胡耀邦의 정치사업보고와함께 趙紫陽은 대회의장단 비서장을 맡았고 부비서장에는 鄧小平派의 젊은 브레인으로 알려진胡喬木, 習仲勳, 楊尙昆, 鄧力群, 胡啓立등 5인이 임명돼 사실상 모든대회진행을 맡고있다. 【朴永喆기자】

蘇, 극동空軍力 대폭增強

백파이어機 90臺이상 配置



◇튀니지에온 아라파트 西베이루트를 떠난뒤 전세기편으로 튀니스에 도착한 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과 하비브·부기바튀니지대통령이 튀니스공항에서 아라파트의 새저택으로 가던도중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두손을 흔들며 답례하고있다. 【튀니스3일AP電=聯合】

太平洋서 정기적訓鍊

폭스배트·SU24등 최신예機種도

【東京=聯合】 소련군이 극동에 배치한 장거리폭격기 백파이어機의 규모가 90대이상으로 대폭 증강된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일본신문들의 호놀룰루발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미태평양공군계획부장은 美·日안보협의회가 끝난후 일본기자들과 회견, 이같이 밝히고 이들 백파이어機는 오호츠크海와 태평양에걸쳐 정기적비행훈련을 실시하고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극동지역에 배치된 소련 백파이어機는 50대정도인것으로 전해져 왔다.

그레이엄부장은또극동소련군의 항공병력에 관해 미그폭스배트와 SU24 편사등의 최신형 개량기종이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제4세대 항공기로 불리는 이들 신형기들은 전천후식별능력과 사격능력이 월등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백파이어로 불리는 TU26 폭격기는 79년하반기에서 80년상반기 사이에 소련극동군에 배치되기 시작한것으로 밝어진다.

이기종은 현재 유럽에서의 동서핵군축협상에서 주요토의대상이 되고있는 SS20중거리 핵미사일과함께 소련이 극동에 배치한 가장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지적되고있다.

波 유혈示威 4일째 계속

【바르샤바AP·UPI=聯合】 폴란드 자유노조창립2주년을 맞아 시작된 노동자들의 항의시위는 연4일째 계속돼 3일에는 서남부의 광산도시루빈을 비롯한 전국54개 시·읍지역에서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 지금까지 최소한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한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당국은 노동자들의 항의시위가 악화되자 반체제단체로서 자유노조를 지원해온 사회수호위원회(KOR)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자유노조간부들과는 더이상 대화를 갖지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李喆洙 무죄評決 나던날…法廷스케치

◇3일 하오8시(현지시간) 배심원들이 입장하기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27호법정밖 복도에서 변호인과 교포들이 서성대고있다. 【샌프란시스코4日=邊鴻鎭기자電】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市民의 승리"

교포들 만세부르며 눈물·환성 뒤범벅

억울한 옥살이 9年만에 되찾은 潔白

【샌프란시스코=邊鴻鎭기자】 3일 하오8시6분(현지시간)『李喆洙는 무죄』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선언되는 순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27호법정은 교포들의 만세소리로 떠나갈듯 했다. 눈물과 환성이 뒤범벅이 되어 이 흥분, 장내정리를 했을정도였다.

李喆洙의 어머니 李美禮씨(49)는『하느님에게 감사한다』면서 말을잇지못했다.

20대를 거의 억울한 옥살이로보낸 李喆洙는 이날『나에게 새로운삶을준 변호사들과 수많은 교포, 후원회 관계자여러분, 언론관계자여러분, 국경을초월하여 도움을준 여러사람들에게 일생동안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뜨거운눈물을흘렸다.

李喆洙의 변호를 담당했던 토니·세라변호사는『오늘의 승리는 李喆洙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 美洲지역에서 전국적으로 李喆洙구명을 주도해 왔던 柳在乾후원회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존경을 표시하면서『오늘의 승리는 李喆洙의 무죄를 믿고 성원해준 전체교포와 미국내 각소수민족의 지지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배심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배심원들이 27호법정에 참석하자 로버트·도시판사는『평결내용이 준비되었는가』라고 배심원에게 물었다.

배심원대표는『준비되었읍니다』라면서 결정내용이 적힌 쪽지를 법정서기에게 전하자 도시판사는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이순간 법정은 물을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으며 李喆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정서기는 메모를 펼친후『낫 길티(무죄)』라고 짧막하게 읽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때 방청석을 메운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를 차고일어나서로 끌어안고 울며 환성을 질렀다.

배심원들은 지난8월2일 재심에 착수한 이래 지난1일부터 평결에 들어갔으나 3일동안 연속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해 3일에는 마감시간을 하오5시에서 다시 하오8시까지 시간을 연장한 끝에 결론을 내게된것이다.

李喆洙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판사에게『방청객들에게 한마디해도 좋은가』라고 묻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李喆洙는 교포들을 향해『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처음부터 무죄였읍니다』라고 말한후 말을 더 잇지못했다. 이때 배심원들도 박수를쳐 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는 수백명의 교포들이 몰려와 밤새도록 축배를 들며 흥분에 들떠 어쩔줄 몰라했다.

◇사건개요

1973년6월3일 하오7시30분 샌프란시스코 그랜트와 퍼시픽 애비뉴 코너에서 차이나타운의 두목 임이택(당시32세)이 세발의 권총을 맞고 피살됐다.

사건현장은 번화가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중요한 목격자의 한사람인스티브·모리스씨는 당시 현장부근에 있었다. 모리스씨는 친구 4명과 함께 사건현장 부근에서 주차하려할때 흑갈색의 고급새차가 후진해왔다.

이차에서 내린 3명의 중국인들은 모두 머리카락이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은 장발차림이었다.

이어 모리스씨는 총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다 봤는데 그중 한명이 오른손에 든 권총으로 임이택의 가슴을겨냥,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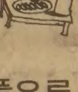
모리스씨와 현장까지의 거리는 4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곧 달려가 임이택을 살펴보았는데 가슴에서 피가 흘러져 나오고있었다.

사건이 일어난후 李喆洙는 공교롭게도 현장부근에 있었다. 李喆洙는 이때 인근의 한 호텔에 머물고있었는데 여자친구로부터 직장으로 데리러와달라는 전화를받고 이날 오9시께 그녀와함께 현장에서 10m떨어진 한국식당으로 갔었다.

李喆洙는 당시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건전날에는 호텔방에서 일어난 권총오발사고로 사건현장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경찰당국에 가서오발사고 경위까지 설명했었다.

이후 경찰은 중국갱단살인사건의 범인으로 李喆洙를지목, 그를 체포했었다.

건강食品 치즈



치즈에는 우유에 함유되는 모든 영양성분이 진하게 들어있을 뿐아니라 발효숙성되는 동안에 단백질이 효소의 작용으로 매우 소화되기 쉬운 모양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치즈는 강장·강정식품에 손꼽히게 된 것이다. 치즈는 6백~8백 종류나 되는데, 크게 나누면 내추럴 치즈와 프로세스 치즈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내추럴치즈는 우유를 효소와 유산균의 작용으로 굳혀서 발효시킨 것으로 효소나 유산균이 산채로 남아있어 생치즈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프로세스 치즈는 내추럴 치즈를 적당히 배합한 다음 가열살균해서 균일한 품질로 하여 보존성을 높인 것이다.

술에 비유하면 내추럴 치즈는 원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치즈는 여러가지 원주를 혼합해서 일정한 품질의 술로 한것과 같은 것이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선 신선한 우유를 살균하고 유산균 스타아타를 넣는다. 유산균 스타아타란 미리 순수배양한 배양액을 말한다. 이 스타아타의 역할은 유당에서 유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의 응고가 잘 되게 산성으로 하는 것이다. 치즈 숙성중에 부패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일과 숙성과정에서 치즈풍미성분을 많이 만드는 일도 담당하게 된다.

치즈는 단백질의 질이 우수할뿐아니라, 우유중에 함유되는 유당(乳糖, 우유중에 약 5%함유 된)이 줄어있다는 사실이다.

高蛋白·칼슘식품으로 強壯가치높아

유산균이 유당을 분해시켜 유산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유를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유당불내증(乳糖不耐症)인 사람이라도 치즈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는 것이다.

제조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프로세스 치즈의 일반 성분은 다음과 같다. 수분 38.8% 단백질 25.2% 지방 27.2% 무기질 4.2%.

이러한 성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치즈는 고단백식품으로 휴대용 강장·강정식품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다.

무기성분으로는 치즈 100g중에 100~1000mg이라는 많은 칼슘이 들어 있다. 비타민B_2도 많으며 동물성 식품으로는 드물게 알칼리성식품이다.

처음에 치즈를 먹으면 고리타분한 냄새와 맛이 나는데 입안에서 오래 씹으면 고소한 향미가 난다.

술안주로도 애용되는데 특히 포도주와 잘 어울리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많아 숙취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

劉太鍾 〈高大교수·식품과학회장〉

海外토픽

10년만에 첫 말문

★복역중인 赤軍派단원

10년전 극좌파단체의 테러에 가담한 죄로 종신형을 복역중인 한일본인이 고국의연가를 듣고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72년 24명의 사망자와 72명의 부상자를 낸 일본적군파의 이스라엘공항기습사건에 가담했던 오까모또·고조(35)는 당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이스라엘의형무소에서 복역중인데 여지껏 일체 입을 열지않았다는것.

그러나 최근 형무소장실에서 그를 방문한 일본의 법학자 오에·이찌오교수가 일본의 유행가를 열창하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함께 따라부르며 자신의 가담동기가『이루지 못한 불행한 사랑』때문이었다고 고백하더라는것. 【텔아비브=AP】

日검은商魂 또物議

★遺傳子工學會議비밀錄音

일본 교오또(京都)에서 세계33개국의 인류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제4회 응용미생물유전국제심포지엄의 회의기록이 악덕업자에의해 비밀녹음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오오사카(大阪)의 의업자는 유전자공학에관한 최신연구결과가 발표된 회의내용을 몰래 모두 녹음, 테이프 30권(60시간분)과 일본어해설서(1백20페이지)를만들어 30만엔씩에 팔려다 사전발각돼 결국 심포지엄주최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80年이래 安定상태

★기울던 피사의斜塔

【東京=聯合】 16세기의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갈릴레이가 중력실험을해서 더욱 유명해진 피사의 사탑이 매년 조금씩 덜 기울어가고 있다고 피사시관리들이 최근 발표했다.

지난 1173년 완공된 후부터 기울기 시작한 55m높이의 이 대리석 탑은 70년대에는 한해에 무려 1mm씩이나 기울어져 갔으나 80년이래로 거의 안정상태에 접어들고있다는것. 【피사=聯合】

◇95세할머니 자동차경주 출전연습 인디애나폴리스500 자동차경주에 출전하기에는 나이가 많은듯 하지만 올해95세의 제니·카펜터 할머니는 프랭클린근처 작은자동차 경기장에서 스피드를즐기고있다. 더욱 대단한것은 제니 할머니가 오른 손을 빼어 붕대를감고 있음에도불구, 훌륭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랭클린(美노드캐롤라이나州)3日AP電=聯合】

外信안테나

◆中共 日式수업태도中斷令

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日本과 마찰을 빚고있는가운데 中共文部省은 한때 滿洲를 통치했던 日本人들이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수업시간중 두손을 등뒤로 가져가는 자세로 앉아있도록하는 악습을 남겨 놓았다고 비난한것으로 光明日報가 3일 보도했다.

光明日報는 中共文部省이 지난28일 전국의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이같은 舊日本式 앉는자세를 중단할것을 촉구하는 공람을 발송했다고말했다. 【北京=AP】

◆印記者들 24시간 總罷業

인도의 신문·통신기자들은 비하르州의 언론법안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제한하기 시작한것으로보고 3일24시간의 전국총파업에 들어갔다. 【뉴델리=AP】

◆比외상, 군사쿠데타警告

아르투로·토렌티노 필리핀외상겸 국회의원은 3일국회가 대통령유고시 권한을대행할 집행위원회의 권한을축소할 경우 필리핀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다고 경고했다. 【마닐라=AP】

正誤訂 正신청키로 日교과서 出版社들

【東京=聯合】 일본정부가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검정필역사교과서의 즉각수정이 불가능하다는입장을 정식표명했음에도 불구, 집필자와 출판사들은 正誤정정신청움직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共同통신에 의하면 역사교과서를 6권이나 출판하고있는 산세이도(三省堂)가『왜곡된 교과서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집필자들의 집약된 의견에따라 일본사·세계사 각3권씩 모두 6권에 대해 오는10일께 正誤정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8〉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⑪

그녀는 자기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서 기뻤겠지. 아기가 있어서 기뻤겠지. 아울든 누구에겐지 소리내어 감사하고싶게 기뻤다.

세상의 잠자리는 태고의 동굴처럼 어둡고 두텁고 타인들이 사는 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간간이 다족류의 벌레들이 벽을 타고 천장을 기는 미세한 소리까지 들렸다.

무심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욕상실로 혐오감조차 없이 마냥 번성하도록 내버려둔 그 벌레들이 문득 오싹하리만치 끼치게 징그러웠다. 소름이 밟는대로 그것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박멸하리라.

아기를 위해서 해야할 일은 그 밖에도 많았다. 축축한 이부자리와 새파랗게 곰팡이를 내뿜으며 썩어가는 궤짝을 햇볕에다 내다 말려야지. 그궤짝은 찬장으로 쓰여져서 악취마저 지독했다. 그속의 그릇들을 더운 물에 삶고 처진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운 도배도 해야지.

아기가 조금만실해지면 안고나가 이 세상의 햇볕이 얼마나 눈부시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기는 감당할까? 그 엄청난 최초의 경이를.

늪같은 잠이 그녀를 빨아들였다. 그녀는 침몰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조의 희망을 버리지않는 난파선처럼 헛되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 새로운 감을 꾸었다.

일환이가 뒤채는기척에 깨어났다. 막연히 아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묵하게 몸전체로 뒤채고 있었다. 낯선여관방에서보낸 첫날밤에도 그는 그렇게 뒤채였다. 그때그녀는 도마에 오른 싱싱한 잉어가 뒤채는 걸 연상하면서 그의 괴로운 몸짓을 훔쳐보았었다. 그 후에도 가끔 그는 잠못 이루고, 또는 자다 깨어나 그렇게 뒤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첫날밤처럼 심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런 증세는 차차 없어져버렸다. 처음에 한밤 도마에오른 고기를 연상했기때문일까? 그런 증세가 가시는걸 그녀는 마치 산소의 결핍이 오래됨에 따라 빛나는 비늘이 바래고 생명력이 시들어가는 잉어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픔으로 지켜보았었다.

그러나 잘생한 남자는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있는게 아닐까. 특히 아무에게도 길들여진 적이 없는 고아의 생명력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려고 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게 그가 뒤챌때마다 어쩔수없이 그녀를 엄습하는 죄의식으로부터의 발뺌도 됐다.

오랜만에 다시 뒤채는 그는 잉어따위엔 댈것도 아니게 괴롭해보였다. 팔을 곧두세우고 방금 돌진하려는 맹수처럼 거친 숨을 힘겹게 절제하고있었다.

조만간에 그가 다치는대로 사람을 상하게할 맹수로 변할것같은 허황한 예감에 그녀는 소스라쳤다. 우선 아기먼저 품안에 품었다.

『왜 그래 자기? 응? 왜 그래요, 남신?』

『아무 것도 아냐』

그가 온몸으로 가다가 닥뒤챘것같지않게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매우 고독해보였다. 그녀의 절곤을 꺼리는 그만의 고독이 그를 도저히 다다를수 없이 먼고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했다.

그의손이 그녀의손을 헤치고 풍만의것을 노려보았다. 그가 아기의 모든것을 꿰뚫어보고있다고 생각되자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여지껏 그렇게 두려워해본적은 없었던것 같았다. 그녀는 뭐라고 말하는대신 겨우 혀로 입술을 축였다.

공고

금번 한인 볼링 협회에서는 82—83 년도에 수고하실 새 이사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 이상수	이 사 : 강춘남
이 사 : 강치영	이 사 : 김정운
이 사 : 민경량	이 사 : 이봉수
이 사 : 이종현	이 사 : 오기환
이 사 : 전기덕	이 사 : 최호영
이 사 : 표봉현	이 사 : 홍명원

1981년 8 월21일

한인볼링협회

회장 정용필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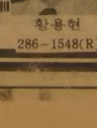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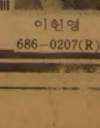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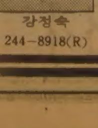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목사청빙공고

본 몬트리올 한인장로교회(캐나다장로교 노회에 가입)에서는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는 목사님은 아래 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격: ▲북미주 정규장로교 신학대학졸업 또는 동등자격자.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자

제출서류: 국문과 영문, 이력서 2통과 사진첨부(가능하면 설교 TAPE 동봉)

대 우: 캐나다 장로교회 교역자 대우와 동등한 대우

제출기간: 1982년 10월 10일까지

제 출 처: 6570 SHERBROOKE, W. MONTREAL, QUE.
전 화: 1—514—481—8270

몬트리얼한인장로교회

목사청방 위원회

무서운 成人病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만과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을 비롯해서 심장병、신경통등각종 성인병이 늘고있다。이들 성인병이 늘고 있는것은 날로 생활형태가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데다 공해가겹쳐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영양이 과잉된다거나 어느 한쪽에치우치는데 큰 원인이 있다。40대이후 한창일할 중요한 시기에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이들 성인병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당뇨병 그리고 비만증의 원인과 증세 치료법을 알아 보았다。〈도움말=▲朴暎哲한양대의대내과교수▲李雄求연세대의대내과교수▲崔圭完서울대의대내과교수▲許甲範연세대의대내과교수〉

○○○○○○○

高血壓

血壓値 사람따라 差異…증상 多樣

규칙적食生活·손쉬운運動 바람직

40을 넘어서면서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갖게되는것이 고혈압이다。주위의 다정한 사람가운데 고혈압으로 해서 갑자기 쓰러져 생명을 잃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게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의압력이 보통사람보다 높은 경우이다。그러나 고혈압의 범위를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민족과 개인、연령、혈압을 재는 시간과 부위에 따라、혈압치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혈압관계 전문가모임을 갖고 ▲정상범위를 수은주(水銀柱) 높이로 최고 1백40㎜、최저90㎜ ▲고혈압은 최고 1백50㎜、최저 95㎜이상 ▲저혈압은 최고 1백㎜、최저 60㎜이하로정했다。우리가 흔히 혈압치를 수치만을 말할때가많은데 이는 ㎜단위를 떼고 부른것이다。

하지만 WHO의 혈압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것。그래서 보통은 40세를기준으로해서 이전과이후의 정상과 고·저혈압을 따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즉40세이하에서는 최고 1백40 최저 90이상、40세이상에서는 최고 1백50 최저 1백이상을 고혈압으로 보고 저혈압은 최고치로만 따져 40세이전에서90、이후에서 1백이하로 정하고있다。

고혈압증은 크게 둘로나누고 있다。하나는 원인을 잘모르는 1차성(本態性)이고다른하나는 2차성(症候性또는 續發性)고혈압이다。우리가 흔히 말하는고혈압은 1차성인 본태성고혈압을 가리킨다。본태성고혈압이 전체고혈압증의 대략 80%정도를 점하고있는데다 40대이후 고혈압환자의대부분이 이에 속하기 때문이다。

본태성 고혈압이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환경·호르몬등 학설이 많다。유전설은 고혈압이 대를 이어가며 유전한다는 것이고 환경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식생활、과로、기후、비만등을 든다는 것이다。이중에서도 특히 식염섭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만드는 중요한환경인자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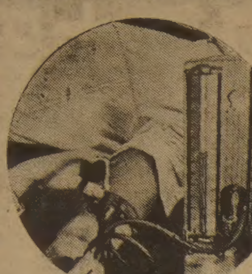
원인을 뚜렷이 아는 2차성 고혈압증의 원인으론 콩팥(腎) 기능이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신성(腎性) 고혈압을 비롯 내분비성고혈압、중추신경성 고혈압、순환기성 고혈압등이 있다。

흔히 뭇머리가 띵하고 묵직하면서 뻣뻣하던가 하면 고혈압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러나 이같은 증상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기보다 신경성인 경우가 많다。실제로 경한 상태의고혈압증엔 증상이 없는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초기 고혈압증에서도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있다。

고혈압 초기에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뒤통수가 땡하고 당기는것 같으면서 뻣뻣해지고 한것、사람에 따라서는 어지러운 증세와 귀울림(耳鳴)、코피가 잘 터져나오기도 한다。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질이나고 흥분을 잘한다。

고혈압증은 고혈압 자체가 문제이기는하나 이보다 뇌혈관과 심장、신장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뇌혈관장애는 뇌혈관에 병변이 일어나 뇌출혈、뇌혈전증과같은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심장장애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左心室)이 살이쪄(肥大) 이때문에 심장기능부전증을 일으키며、신장장애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기능부전증(腎不全症)등을 일으키는 일이다。이밖에 기관지염이라는가 폐렴과같은 감염증에 잘걸리며 소화기계통에도 문제를 일으킬수있다。또 동맥경화를 한층 가속시킨다。

1차성의 본태성고혈압은 일단 생겨나면 완치 시킬수는 없다。그러나 고혈압증은 하나의 증세에 불과해서 고혈압 자체만으로 생명을 잃는일은 거의없다(악성고혈압 예외)。따라서 의사와 환자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각사람의 증세와 체질에 알맞은 적절한 약물을 계속 투여、혈압을 조절하면서 규칙적이고 심신의 안정과 올바른 식생활을 하면 정상인과 크게 다름바 없이 생을 누릴수 있다。일정한 시간에일어나제시간에식사하고 규칙적으로 대변을보며 산책과 같은 몸에 큰 무리를 가져다 주지않는 운동을하도록한다。과로하지말고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적절히 푼다。짜게 먹는것은 금물、변비가 되지않도록 한다。담배는 아주해롭다。기름기를 삼가고 몸이 뚱뚱해 지지 않도록 고칼로리 식품인 기름기와 쌀밥 빵 설탕등 지방과 탄수화물계통의 식사양을 조절한다。미역같은해조(海藻)류는 좋다。약은 의사의지시에 따라꾸준히 복용해야한다。



◇40대이후엔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할 필요가있다。

動脈硬化

血管에 彈力없고 기름기

血壓낮추고 스트레스 해소토록 動物性기름·糖分등 過食삼가야

사람은 동맥과함께 늙어간다고한다。동맥이 탄력성이 있고 튼튼하면 젊음을 그만큼구가할수있고 굳어지면 굳어진만큼 죽음에 다가간다는것이다。

미국과 유럽 여러나라에서 동맥경화에따른 여러가지 합병증이 가장큰 사망원인이되고있는것은 여기에있다。동맥의 노화 즉 동맥경화를 막을수만 있다면사람은 최소한 현재보다20~30년은 더젊음을 누릴수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동맥경화란 쉽게말해서 동맥이 탄력성을 잃으면서 굳어지는현상이다。

동맥이 탄력성을잃고 굳어지는것은 혈관안에 기름기가끼고 혈관자체가 나이가들어감에따라 탄력성섬유가 줄어드는반면 탄력성이없는 교원질(膠原質)로 변해가기때문이다。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되는것은 혈관에기름기가 끼는것이다。

혈관에 기름기가 끼도록 하는 주범으론 베타리포단백이란 물질이 꼽힌다。기름기는 혈액속에서 단독으로 있을수 없다。기름기가 온 몸으로 보내지기위해선 리포단백으로 불리는 특수한 단백과 결합하지않으면 안된다。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되는것이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하는 주범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달고 다니는 베타리포단백이란것。

그러나 혈액속에 이같은 물질이 증가한다해서 곧바로 동맥경화가되지는 않는다。여기에 유전적인 소인과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한 내분비장애、과체중、흡연、과음、운동부족、스트레스의 축적、과식과 많은 양의 동물성기름기의 섭취、연령、성별등 무척 복잡한 인자(因子)가 겹쳐 나타난다。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관자체가 파괴되어 동맥벽에 출혈이 일어 나는가하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흘러 들어가지 못한다。심한 경우엔 혈관이 완전히 막혀 그 혈관을통해 영양공급을 받던 부위의 세포가 죽어나가게 된다。이같은 현상은 동맥이 뻗어 있는 우리몸 어디서고 일어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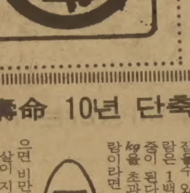
동맥경화가 뇌혈관에 생기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가하면 어지럼증 귀울림(耳鳴)、의지(意志)박약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졸중(腦卒中)이 일어나기도 한다。동맥경화현상이 심장에 오면 협심증과 무서운 심근경색증이나타난다。콩팥에 오면 위축신(萎縮腎)、다리(下腿)에 오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일어나 쉬어야하는증세(間歇性跛行症)가 일어날수 있다。동맥경화의 공포는 바로 이같은 합병증에 있다。

동맥경화는 이같이 우리몸 여러장기에 장애를 가져다준다。동맥경화는 그 진행정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정확히 예측할수없고 일단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다는데 한층 문제점이 따른다。동맥경화의 진행정도는 다만 노출된 동맥을 볼수있는 안저(眼底)검사와 혈액검사를 이용한 고지방혈증(高脂肪血症)、고혈압、당뇨병、과체중、흡연、연령등을 통해 추정할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나타나기전에 예방하되 일단 생겨나면 진행되는 속도를 될수록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길은 혈압을 낮추고 표준체중을 유지하면서、당뇨병과같은 유인인자를 철저히 조절 또는 제거해주는 일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몸이 뚱뚱해도 혈액안에 동맥경화를 만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늘린다。따라서 과식은 금물이다。그중에서도 동물성기름기와 당분이 좋지않다。편식을 하든가 밥과 빵등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많아도 혈액안의 중성지방을늘린다。술도 해롭다。담배의 니코틴성분은 혈관을 수축케하는 작용이 있어 역시 좋지않다。【李光熙기자】

주간女性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肥滿症

합병증 발병률 3배많고 壽命 10년 단축…필요이상 營養섭취 말아야

나이가 40을넘어서면 말랐던사람도 대개는 살이붙어 비대해진다。

살이 두둑이찌면 흔히 풍채가있다해서 좋아하는사람들이있다。그러나 몸무게가 일정치를넘어 비만증이 되면 건강에 여러가지 문제를일으킨다。「허리띠가 늘어난만큼 수명이 짧아진다」고 한것은 잘알려진 이야기。

뚱뚱해지면 우선 당뇨병 발병률이 4배나 높아진다。우리나라는 뚱뚱한사람의 60%、미국은 80%정도가 당뇨병을 갖고있다。

고혈압도 정상인에비해 3배의 높은 발병률을보이고 동맥경화는 10년을앞서 나타나며 심장병은 3·5배로증가된다。무릎과 같이 몸무게가 많이걸리는 뼈마디엔 관절염이 쉽게생길수있다。이때문에 비만증의 사람은 표준체중을가진 사람에비해 이들 여러가지 합병증이 3배나 많이 발생할수있고 이로해서 수명이 10년정도 줄게된다。

표준체중은 민족과 국민에 따라 약간 차가 있을수 있으나 대략 자신의 키를 ㎝로환산해서 1백65㎝이하에서는 1백、이상에서는 1백10을 뺀 수치에 ㎏을 붙인 양으로 잡을수 있다。예를 들어 키가 1백70㎝인사람은 1백10을 뺀 60㎏이 대략적인 표준체중이 된다。비만증은 이보다 20% 즉72㎏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1백60㎝의 사람이라면 55㎏이 표준체중이 되고 66㎏이 넘으면 비만체중이 되는 셈이다。

살이 지나치게 찌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가장흔한 원인은 외인성(外因性)으로 하루의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보다 많은양의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있다。사람은 하루에 보통 체중 ㎏당 35칼로리의 열량을 소모한다。

즉 표준체중이 45㎏의 사람은 1천5백75킬로칼로리、70㎏이면 2천4백50킬로칼로리를 섭취하면 균형이 맞는다는 계산이 된다。이보다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게되면 여분의 칼로리가 몸안에 기름기로 바뀌어 아랫배와 같은곳에 저장되게 마련이어서 살이찌게 된다。40대이후 살이 찌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에 속한다。

이밖에 유전적인 소인、정신적인 좌절감、부신(副腎)에 혹이 생긴 쿠싱병、갑상선(甲狀腺)기능저하、뇌하수체(腦下垂體)의병과 같은 호르몬기능의 이상이 비만을 불러들일수 있다。정신적인 좌절감이있으면 일종의 보상책으로 음식을 많이 먹게된다。

비만증치료는 따라서 우선 원인을 가려 원인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한다。특별한 병이 없이 뚱뚱해진 경우엔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음식의 양을 줄이면서 운동을 해서 몸안에 들어온 여분의 칼로리를 써버려야 한다。

메아리

요즘 출판업계가 불황이라고 한다。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6·25이래 가장심각한 상태라고까지 보기도 한다。까닭이야 어찌간에 책이 안팔린다면 즐거운일이 아니다。

이런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불경기에 아랑곳없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 몇가지있다。그중의 하나가 金洪信씨의 소설「人間市場」이다。「人間市場」은 지금까지 3권의 책으로 나와 도합 30만부가 매진되었다고 들린다。우리 출판계에는 어느책이 출판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냐를 비교해서 단정할만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몇권의 책들이 저마다 선두를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지만、30만부면 소설류에서는 단연몇손가락 꼽을수있는 역대 베스트셀러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것이 업계의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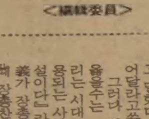
「人間市場」은 재작년말부터「週刊한국」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중인 인기소설이다。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매화 한토막씩의 이야기가 이어진다。法學徒이자 힘이 센 주인공 장총찬은 표창을 가지고 다닌다。그는 現代版義賊이어서 모든 꼴보기싫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결딴을 낸다。갖가지 不正、不義의 현장을 장총찬이 찾아다니면서 시원하게 쓸어준다。말로 안되는것에는 주먹과 표창의 위협이 있다。그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일부非理의 재벌、고급공무원、정치가、세무서원、신문기자、판검사、변호사、교수、교사、탤런트、프로듀서、복부인、건설업자등 각종부류의 사람들이다。

베스트셀러

작자 金洪信씨는 이소설의 作意를 이렇게 말한다。

『사회고발을 하는것은 작가의 사명의 하나다。우리 사회에는 법으로 해결안되는것이 너무나 많다。상식이 통용되지 않는곳이 수두룩하다。不義가 있어도 법은 구멍이 뚫린채 멀리 있기때문에 좀 비열하지만 힘으로라도 해결할수밖에없다。그것이 내주인공이다。내 소설은 상식을 보호하기위해서다。정직하고 선량한시민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우리 사회에는 장총찬을 데리고 가야할 데가 얼마든지 있다。반드시 가진者가 약자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곳만이 아니다。일상생활에서 惡德漢들의 행패를 당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이럴때 법으로는 될일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나 금방 주먹이 올라가고싶어진다。어떤 귀신이 와서 저런 친구들을 안잡아가나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요즘 귀신은 어디로 놀러 다니는지 영 나타나지 않고 어쩌다 참다못해 정말 손찌검이라도 한번 하게되면 그때 나타나는것이 숨어있던 法이다。화를 돋구어 약을 올린것은 저쪽인데「약올린 죄」라는 것은 없다면서 法은 언제나 이쪽만 잡아간다。法의 차원을 떠나서 생각하면 이것은 불공평하다。「人間市場」에서 작자는「하느님、아무리 용서하는것이 직업이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습니까」하고 하느님께 하소연한다。하느님마저 가만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잡아갈 귀신조차 나타나지않으니까、長銃찬 장총찬이 대신등장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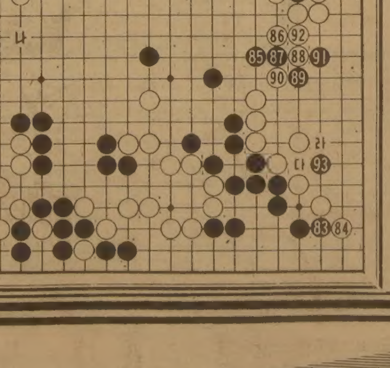
「人間市場」이 근래의 베스트셀러인것은 독자들이 法이외면하는 不義와 非理와 惡德에 시달려 응어리가 뭉쳐있기때문이다。누구나 잠시라도 장총찬이 되고싶기 때문이다。

「1984년」의 작가 조지·오웰은『나는 폭로하고 싶은 허위가 있기때문에、世人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싶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내가 원하는것은 남들이 들어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人間市場」의 작자도 들어달라고쓴다。

그러나 장총찬의 행위가 언제까지나 용납될수는 없다。작자자신도『이책이 팔리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다。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전혀 읽히지 않을 소설이다』라고 말한다。건전한 良識과正義가 장총찬을 대신할수 있는 사회가 될때 장총찬은 사라진다。이런 출판계의 불황기에「人間市場」같은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않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고침 어제「메아리」『모를稅』중 의료보험료 공제「3·1%」는「1·5%」의 잘못이었읍니다。바로잡읍니다。【佑】

第14期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8譜 74~93 (각4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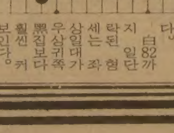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白74가 黑의 의표를 찌른 속전속결의 강수였다。이수로 평범하게 77자리에 벌려 보았자 黑「가」로뛰면 白만 옹색해진다。그래서 지금까지 수차 시도한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상변을 처리하려고 활착 붙여본 것이다。

黑은 75에서 77로젖혀 白의응수를 타진했지만 白이 78쪽을 잡자 잠시망설이다가 79、81로 잡고 선수를 뽑았다。黑79로는 80자리를 잇고 버티고 싶지만 이것은 참고도처럼 白2의호착이하 10까지 된다음 계속해서黑13、15면 白22까지 선수로 죔을 당한끝에 실전譜의 白「나」정도로도 黑은 승산이 없다。

白82까지 일단락된 형세는 좌상일대가 우상귀쪽 黑집보다 훨씬커 보인다。

黑93、예리한一擊



이리하여 盧7단은 이곳에서도 임기응변책으로 만족한결과를 얻은셈이다。

黑은 대신 83에서85、86。이때 白은88로 뛰어지키지않고 86 △표쪽黑집을 겸사겸사 삭감할 요량인데 그러나黑이 87이하 91까지 공작해놓고 93으로 급소를 찌르자 盧7단은 응수가 난처해졌다。자、「다」의곳을 잇느냐、「라」쪽을 막느냐。【二凡】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럭 북쪽)
☎ : 241-8091, (R)276-4373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새로운 매니지먼트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금번 제가 동궁을 인수받게 되어 교민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계속 저희 식당을 애용해 주시고, 배전의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기주 올림

계절의 진미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동궁식당

1416 VICTORIA PK. AVE.
(빅토리아×에그링톤 SOUTH)

ORIENTAL CASTLE 동궁식당
☎757·6334

國民銀 "無敗의 행진"

實業축구 外換銀꺾고 浦鐵과 1位

國民銀行은 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실업축구 코리안리그 28일째 경기서 약체 外換銀行을 5-0으로격파하고 통산 5승6무를 기록, 선두주자 浦鐵(승점16)과 공동1위로 어깨를 나란히했다.

趙廣來, 姜信寓, 張外龍, 崔景植등 4명의 국가대표선수가 활약한 大宇는 이날 호적수 第一銀行을맞아 90분동안 치열한공격을 퍼부었으나 第一銀行의 두터운 수비벽을 뚫지못해 0-0으로비겨 공동4위를 유지했다.

◇제28일 전적

충의 2 (1-0, 1-2) 2 한일은행 (3승5무2패) (2승4무4패)

제일은행 0 (0-0) 0 대우 (5승3무2패) (4승5무1패)

국민은행 5 (3-0, 2-0) 0 외환은행 (5승6무) (1승3무7패)

서울女商 탁구팀 全種目석권 優勝

터키 주니어오픈

서울女商탁구팀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동안 앙카라(터키)에서 벌어진 제10회 터키주니어 오픈 탁구선수권대회 여자부단체결승전서 소련을 3-2로꺾고 2년만에 패권을 탈환하는등 개인단복식과 혼합복식등 4개의 전종목우승을 휩쓸었다고 탁구협회에 알려왔다.

한국을 비롯한 소련 리비아 이탈리아등 11개국이 출전한 이번대회에서 서울여상은 A·B팀으로 출전, 소련과 함께 3팀이 결승 리그에 올라 A팀은 2전전승, B팀은 2패로 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단식 결승에서는 한국선수끼리 대결, 金英美가 盧銀燁을 2-0으로 물리쳤다.

이번대회에서 서울여상은 금4 은1 동1개등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결승전적

▲단체전=①한국A 2승 ②소련1승1패 ③한국B 2패

▲개인단식

金英美 2-0 盧銀燁

▲동복식

李仙·吳明淑 2-0 金英美·盧銀燁

▲혼합복식

李仙·타테르(리비아) 2-0 얄티·보간즈(터키)

李德姬 3차전進出

US오픈 테니스

【뉴욕 AP聯合=聯合】 한국의李德姬는 3일 뉴욕의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속행된 US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단식 2차전에서 美國의 캔디·레이놀즈를 3-0(6-3, 7-6)으로 꺾고 3차전에 진출했다.

체코의 만들리코바는 美國의 앤·화이트를 2-0(7-6, 6-2)로,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도 질·데이비스를 2-0(7-6, 6-1)으로각각 누르고3차전에 나섰다.

李鍾允·全勇泰 대회新

KBS盃 陸上 男高4百m 50秒壁 깨고

제10회 KBS배 쟁탈전국육상경기 대회가 8백85명이 출전한 가운데 4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되었다. 첫날 남고 4백m서 李鍾允(제물포고)과 全勇泰(대전체)는 각각 49초34, 49초63을 기록, 대회신기록(종전 50초F)을 세웠다. 여고 투포환서 林京淑(충남여고)은 13m41을 던져 대회신기록(종전 13m29)을 수립했고, 여고 1백m서 李英淑(인일여고)은 12초22로 우승했다.

한편 남중 투포환서 柳赫(남서울중)은 17m를 던져 종전 남중최고기록 16m63을 37cm경신, 남중 최고기록을 수립했으며 남중 높이뛰기서 金祥福(용산중)은 1m90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남중투창서 金基勳(이원중)은 59m30을 마크,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한국、日에敗北

세계프레女子배구

【사웅파울루=聯合】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4일 새벽(한국시간) 사웅파울루국립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프레배구선수권대회 6일째 경기에서 日本에 3-1로패해 1승3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날 잦은 범실로 1、2세트를 15-5、15-8로 내준뒤 3세트에서는 金貞順의 중앙속공과 金英淑의 오른쪽 강타, 朴美姬의 블로킹이 위세를보여 0-5에서 8-5로 뒤집은뒤 15-12로 승리했으나 4세트에서는 日本의 이시이·스기야마의 블로킹을 뚫지 못하고 이즈하라와 요코야마에게 강연타를 허용, 15-4로 무릎을 꿇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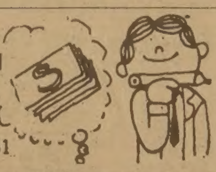
◇여고 400m의 疾走 여고 4백m예선서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있다。

문화단신

以書會 6人展 百想 기념관서

以書會6人展이 9일까지 百想기념관(서울안국동로터리 풍문여고정문옆)에서 열리고있다.

산수화·서예등 5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제1회전시회에는 李秀弘 趙茂男 李俊韓 秦相 邊爽寅 崔翼理씨등이 출품했다.



광고문의 533·2361

한국、伏兵 伊에 逆轉敗

7회 연속3安打로 2點뺏겨 2-1

파리나、위력의 快速피칭 「가벼운相對」에 4회先制點 못지켜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세계야구 제패의꿈에 부풀었던 한국야구대표팀이 개막 첫게임에서 뜻밖의 암초에 좌초、망신을 당했다。 제27회 세계아마추어야구선수권대회 개막일인 4일 잠실구장에서 金相浹국무총리의 시구로 벌어진 개막전서 주최국 한국은 얕보던 첫상대 이탈리아에게 7회초 5번 카렐리의 2타점 결승타를 비롯한 연속3안타를 얻어맞고 2-1로 역전패、뼈아픈 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5일 하오3시 잠실구장서 유력한 우승후보의 하나인 美國과 2차전을갖는다。 이날 서울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파나마-自由中國전은 10일 상오10시30분으로 연기되었다。 이 대회에는 한국·美國·日本등 10개국이 참가、14일까지 풀리그를 벌인다。

한국-이탈리아

야구 후발지역팀으로 얕보던 이탈리아는 뜻밖에 만만치 않았다。

우승을 향한 첫징검다리로 낙승을 점치며 선택한 첫상대 이탈리아는 우완에이스파리나의 쾌속구와 날카로운슬라이더로 한국의 공격을 산발시켰다。 한국은 제대로 찬스조차 잡지못했다。

초반은 그런대로 한국페이스。 1회말선두1번 金在博이 1루라이너로、2번趙城玉이 삼진으로 아웃당했으나 3번지명타자 李海昌이 좌익수키를넘어 첫안타를 때리고 4번張孝祚가 내야안타 5번沈載元은 포볼로 2死만루를만들었다。

6번타자 柳斗烈이 이찬스를 살리기위해 9구까지 파리나와 끈질기게 승부했으나 결국 3루땅볼로 잡히고말았다。

2회말 오버런으로 두번째 득점기회를 잃은 한국은 4회말 선두4번 張孝祚가 통렬한 우중월3루타로 득점의 길을 열었다。 5번 포수 沈載元이 적시에 우전득점타를 날려 한국은 1점을 선제했다。 6회까지 한국의 선발金始眞의 역투에 산발2안타로 눌리던 이탈리아는 7회말3개의 연타를 퍼부어 단숨에 2-1로 전세를 뒤엎었다。

1死후3번구기아나가중전안타、4번 오리지가우전안타를때려 1·2루의찬스를만들자 5번 카렐리가 金始眞의 초구를 강타、중월2타점 적시타로 게임의흐름을 뒤바꾸어놓았다。

이탈리아가 포볼을골라 찬스를만들자 한국은 崔東原으로 마운드를 구원、2死만루의고비를 어렵게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한국은 8회말 병살타로 1死 1·3루의 호기를 놓치더니 9회말 마지막공격에서 2死후 핀치히터로나선 韓大化가 우익수옆으로 빠지는안타를때려놓고 2루까지 달리다 힘좋은 이탈리아 우익수의멋진송구에 걸려 태그아웃당했다。 한국은 안타수에서 9-6으로 우세를보이면서도 무리한 주루와 적시타불발로고배를 들었다。

◇첫날전적

이탈리아 000 000 200-2

한국 000 100 000-1

▲이탈리아 투수=파리나 포수=로·네로 ▲한국투수=金始眞·崔東原(8회) 포수=沈載元 ▲안타=이탈리아6-9한국

◇필사의 3루突進…"아웃" 한국-이탈리아 개막전。 2회말 땅볼을때려 앞선 주자를 아웃시키고 1루에 나가있던 8번 鄭求善이 이탈리아 투수의 견제 악송구로 2루를 돌아 3루까지 달리다 태그아웃、찬스를 놓쳤다。

◇한국-이탈리아 개막경기에 앞서 金相浹 국무총리가 시구하고있다。

金總理始球 개막

선수들에 하와이레이 걸어줘

金相浹 국무총리 서리를비롯、李源京 체육부 장관、金聖培서울시장、金溶植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로버트·스미스국제 야구연맹회장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10개국 선수들은 濠洲부터 알파베트순으로 입장、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세계野球 덕아웃

파나마팀 유니폼없이 出戰

準備소홀… 외국팀들 不平

戰力노출꺼려 각팀들 쉬쉬

對自由中國戰 연기

○…대회 개막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이던 파나마-자유중국 대전은 파나마선수단이 유니폼을 지참하지 않은 바람에 연기되었다.

파나마선수단은 출국후 美國 마이애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비행기편을 갈아탔으나 미처 유니폼이든 짐을 인수받지못해 단복을입은채 개막식에 참가, 뒤늦게 대회본부측에 사정을 털어놓았다.

국제연맹(AINBA)기술위원회는 자유중국-파나마전을 12일상오10시로 연기했으나 자유중국측이 이조정안에 반대해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일정을 조정, 10일상오10시반에 열기로 확정했다.

대회본부는 경기스케줄을 지키기위해 한국선수단 유니폼을 기증하려했으나 사이즈가 맞지않아 결국 서울운동장 첫날경기는 이뤄지지않았다.

有功인사에 공로패

○…국제야구연맹(AINBA) 로버트·스미드회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국제야구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공로상패와감사패를 증정했다.

AINBA규정에따라 15년간 국제야구선수권대회에 참여, 60게임에 출전했던 룸·헤비쉬어(미국)씨는 「올해의심판상」을받았으며 개막전 한국과 이탈리아경기의 주심을보는 영광을 누렸다.

AINBA가 처음 마련한 임원상은 유럽연맹회장 AINBA 제1부회장등으로 60년간 국제야구발전에 공헌한 브루노·베네커씨가 받았다.

日本스포츠용구 메이커 미즈노社의 겐지로·미즈노회장은 야구용구를 개발공급한 공로로, 美國프로야구 커미셔너 보이·쿤씨는 야구의 국제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상패를 받았다.

대한야구협회 林光廷회장은 이번 대회의 조직과 준비에대한 공로로 상패를 받았다.

通信시설등 불충분

○…대회규모에 비해 준비가 소홀, 개막 첫날부터 외국선수단과 보도진의 불평이 터져나왔다.

이대회에는 日本·美國·自由中國·캐나다·이탈리아등에서 3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었으나 이들을위한 전화·텔렉스등 통신시설이 전혀 준비되지않아 주최측의 무성의를 탓했다. 구내식당에서도 하오3시를 넘어서자 음식이 바닥나 한바탕소동, 외국손님들은 식사중인 한국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식사주문통역을 요청하는등 애를먹었다.

한국팀에 간식費도

○…全南야구협회장인 金鍾太씨(광주일보사장)는 대회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기위해 간식비로 1백만원을 전달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밤9시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워터루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펑" 소리와 함께 물쏟아져

——埋沒순간을 말하는 生還광부 裵大昌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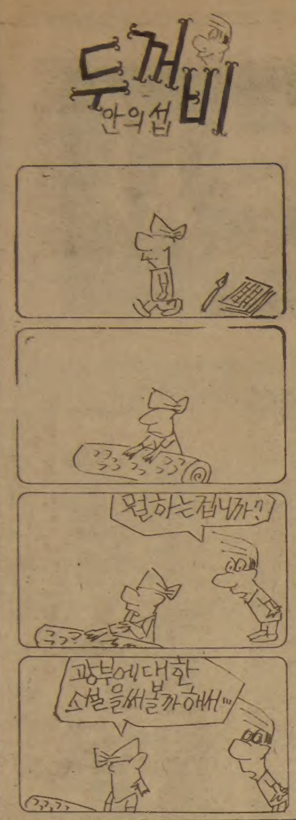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추위
救助기대속 "버텨보자" 격려

◇살아야겠다는 초인적인 의지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낸 金在運씨가 의외로 회복이 빨라 생환하루만인 4일상오 가족들과 생환의 기쁨을 나누고있다. 【太白=임시취재반】

【太白=임시취재반】 매몰14일만에 동료 3명과함께 기적적으로 구조된 裵大昌씨 (41)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3일이면 구조될줄알았다』고 말했다. 裵씨의 이말은 구조가 의외로 지연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탄광측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생긴사고인 데다가 양수기를 동원, 구조작업을 했으며 그동안 태풍까지부는등 작업여건이 나빴다』고 해명했지만 광산사고전문가들은 『불의의 사고에대한 대비책이 소홀했다』고 지적하고있다. 다음은 칠흑같은 갱속에서 동료광부 3명을 위로하면서 14일9시간43분간 끈질긴 죽음과의 투쟁을벌인 광부 裵大昌씨 (41)가 회상하는 갱속의 하루하루다.

발생…… ▲8월20일 상오7시=金在運씨 (49)와함께 다이너마이트를 몰을구멍 22개를 판뒤 金基展씨 (27)와 孫信廣씨 (39)가 작업하는 곳에 도와주러 가던중 분기점에서 도끼등 작업도구를 놓고 막커브를 도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함께 물이 쏟아졌다. 물은 순식간에 배꼽까지 찼다. 막장으로 찾아가려고 2~3분간 물속에서 시도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계속 물이 목까지차게돼 대피소로 뛰어간 나머지 동료들에게 『압력에의해 고막이 터질지모르니 엎드려라!』고 소리쳤다. 대피소까지는 물이 들어오지않아 당장 안심은되었으나 옷이 물에젖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것같았고 추위를 견디기위해 안전모등(캡·랜턴)을 배꼽에대고 4시간가량이나 몸을녹였다. 당시 추위는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 갱목을 깔고앉아 『3일만있으면 구조될것이니 안심하라』고 동료들을안심시켰다.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다 하루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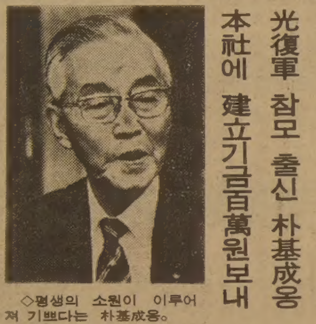
▲8월21일=동료들 가운데 조는 사람이 생겼다. 『옷이 물에젖은채 잠에들면 얼어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체온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나자신도 양다리사이에 손을넣고 비비거나 팔을폈다오므렸다 하는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동료들과 몸을 비볐다. 이때 나는 『버틸때까지 버티자』며 동료들을 격려했다. 물어나면 물은 운반갱도를 뒤덮은후 우리가있던 우측승갱에도 5m정도 차올랐다. 다행히 갱안에 설치된 공기파이프는 막히지않아 산소가 공급됐다. 이렇게 아무진전없이 또하루가 갔다. 【10면에계속】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獨立기념관은 平生의 소원"

光復軍 참모 출신 朴基成옹
本社에 建立기금百萬원보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 기쁘다는 朴基成옹.

일제때 광복군정보참모로 항일투쟁을 벌였고 건국후에는 국군에 참가, 6·25전투까지 참전했던 朴基成옹 (75·광복회이사·서울江南區瑞草洞569)이 4일 독립기념관건립기금 1백만원을 한국일보社에 전달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셋방을 구하려고 모아둔 돈을 선뜻 들고 찾아온 朴옹은 평생소원이던 독립기념관을 짓게된 기쁨에 노안을 활짝 펴며 감격에 들떠있었다.

『몇안되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앞장서야 뜻이 있고 온국민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朴옹에게는 후세들에게 산교육장이될 기념관하나가 없다는게 늘마음아팠다. 제3공화국시절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번갈아찾아가며 독립기념관건립을 역설해왔으나 별무신통이 없었다가 이번에야 생전의 소원을 이룰수가있어 개인적으로도 의의가 크다고했다.

忠北鎭川태생인 朴옹은 18세에 일본에가 중학을마쳤으나 한국인에대한 차별대우에 항일운동을 펴기로 결심, 중국상해로 건너가 동지들과함께 항일투쟁을 시작했다.

사전에 계획이 누설됐지만 상해에 있는 일본공사 有吉을 암살하려고 모의한 六三亭사건에 연루됐었다. 38년 南京의 중앙군관학교에입학, 41년에 졸업한뒤 중국군대위로 重慶에있던 중국군총사령부로 배속됐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와있는것을 알고 광복군정보참모로 장군위하의 광복군과 싸웠다. 44년부터는 池靑天 金弘壹장군휘하의 제대, 독립군에 들어갔다. 해방후 귀국한 朴옹은 육사 3기로 건군작업에 참여, 6·25전투중에는 육군중령으로 議政府전투에서 공을세우고 59년 육군준장으로 예편했다.

朴옹은 지금도 중국에서본 일본군의 잔학상이 치를떨게 한다. 일본군이 거쳐간곳은 사람은 물론 짐승도 한채 남지않았고 살인 강간 방화가 무차별하게 자행됐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결혼도 늦었던 朴옹은 귀국후 43세에야 결혼, 슬하에 장남 朴庸秀씨 (34·延世大교수)와 딸셋을 뒤늦게 두었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있느라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못했고 외아들이었던 자신을 찾으러 만주를 헤매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망국의 한과 함께 지금도 늙은 朴옹의 가슴은 미어진다.

『철면피한 일본인들이 교과서를 왜곡하는일은 당연한것』이라고 짙은 분노를 터뜨리는 朴옹은 이번기념관건립사업을 국민총화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독립정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몇번이고 강조했다.

결혼거부하자 殺人

20代범인, 형수도움받아 시체暗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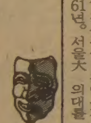
【大田】忠南錦山경찰서는 4일 술집 접대부에게 결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과도로 찔러 숨지게한뒤 암매장했던 배전석씨 (21·농업·錦山郡秋富面龍池里416)를 살인및 시체유기혐의로, 배씨의 형수 최영숙 여인 (22·농업·錦山郡秋富面龍池里416)을 시체유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31일밤 8시30분께 대전 역앞 무허가여인숙에서 접대부 민모양 (23)과 정을통한 뒤 다음날 상오10시께 민양을 자기집으로 데리고가 결혼하자고 졸랐으나 거절당하자 화대3만원을 되돌려달라며 마구 때려 실신시킨후 길이 20㎝의 과도로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는것. 배씨는 숨진 민양의 시체를 마당앞 창고에 숨겨뒀다가 2일새벽 1시께 형수 최여인과 함께 인근야산에 암매장한뒤 부산에 사는 매형집으로 달아났다가 4일 경찰에 자수해왔다. 【聯】

광산촌 仁術

太白市 서울의원 金烔周원장

哀歡을 함께…「반짝福祉」에 一針



太白시 서울의원장 金烔周씨 (52·사진)는 주업이 의사인지 아니면 광산사고 구조대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광산사고가 났다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구조대원에 끼인다. 부탁을 받지 않아도 사고소식이 들리면 현장으로달린다.

3일 裵大昌씨등 4명의 광부를 구조할때도 가운을 벗어던지고 숨막히는 갱내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숨이 턱에 찼으나 자주 드나들다보니 이젠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이 때문에 동료 의사들은 金원장을 「굴전문의사」라고 놀려서 부르곤 한다.

金씨가 광산촌을 찾아온것은 21년전인 61년. 서울大 의대를 갓졸업하고 현재 長省산재병원의전신인 석탄공사병원의 정형외과의사로 부임했다. 이때부터 광산보건검열단원으로 갱내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별생각없이 갱내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할번한것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太白시일대 15개 탄광을 손바닥보듯 한다는 프로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金씨는 사고가 났을때 꼭 인술을 펴기위해서 갱내에 들어가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광부나 가족들에게 의사가 가까이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주기위해서다. 지난 20일 裵씨등이 파묻히는 사고가 났을때도, 3일 이들이 구조될때도 2대의 앰뷸런스를 끌고 누구보다 먼저 뛰었다.

太白시 광부들은 金씨를 「金슈바이처」라고 부른다. 그는 사재로지난64년 太白시 長省洞에 광산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자활촌을 마련해 주기도했다. 현재 15세대의 광산재근로자들이 국수및 두부공장을 경영,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정치에 꿈을 가진게 아니냐는 오해도 더러 받았지만 이제는 광부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 太白시 반공연맹회장, 청년회의소 회장등을 역임하고 불우청소년선도에 앞장선 그 경력들이 오해를 낳았는지도 모른다.

『어두 컴컴한 굴속이었지만 구조된 광부들이 온몸을 떨며 고맙다는듯 손을 잡았을때 광산촌에 살고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같은 순간이있어 내생활이 단조롭지않은가 봅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며 다시 모습을 찾은 金씨는 『사고가 났을때만 반짝하는 광부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쉽기만 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太白=임시취재반】

10마리중 9마리가 「腦炎모기」

어린이·老人 물리지 않도록 당부

보사부, 市道에 防疫소독 強化지시

요즘 발생에 달려드는 모기 10마리중 9마리가 뇌염모기여서 뇌염발병률이 높은 어린이들이 특히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같다.

보사부는 4일 光州, 釜山등지의 뇌염모기밀도가 90%를 넘고있다고밝히고 각 시도에 뇌염방역·소독을 강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보사부당국은 전국각지의 모기를 샘플채집, 뇌염모기의 숫자를 분류한결과 이들지역모기중 뇌염모기가 90%를 넘어서고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뇌염환자가 많이 발생할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큰것으로 내다보았다.

보사부는 이날 긴급방역소독강화지시를 전국에 내리는 한편 반상회와 학교등을통해 뇌염에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3~15세의 어린이와 노약자는 뇌염모기에 물리지않도록 주의하고 과로와 폭양을 피해 줄것을 당부했다.

전남북지방의 경우 뇌염모기는 지난 8월중순께 이미 80%를 돌파, 예년보다 훨씬 높은 밀도를 보였다. 【관련기사7면】

集水井에 農藥

【大邱】한마을주민 1천여명이 식수로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집수정에 농약병 10개가 뚜껑이열린채 버려져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3일 하오2시께 大邱시수성구 고산1동 마을옆 간이상수도 집수정에서 20cc짜리 농약병 10개가 버려져 있는것을 이동네 주민 조영제씨 (3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제의 농약병과 상수도물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발견자 조씨는 이날 수도물을 마셔보니 평소와 달리 물맛이 쓰고 농약냄새가나 두께0.5㎜짜리 철판으로된 집수정뚜껑을 열어보니 B농약회사제품인 볍씨소독용 20cc짜리 농약병10개가든 상자가 집수정속에 버려져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물로 점심밥을 지어먹은 이동네 이순한여인 (42)등 20여가구주민 30여명은 속이메스껍고 가벼운두통등 증세를 보이는등 한때 고통을 받기도 했다는것이다. 【聯】

수학여행때 教師들에커미션
觀光會社들 여행비의20%씩

【釜山】일부 관광업자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전체여행비의 15~20%를 커미션으로 제공해온사실이 4일 시내 10개관광회사를 대상으로한 부산시경의 탈세혐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같이 여행비가 부당지출되어 학생들은 싸구려 여관방에서 새우잠을자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대수까지 적게 배차해 콩나물여행을 해온것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부산시경의 1차 수사에서 적발된 영일관광 (대표 李[illegible])의 경우 수학여행시즌인 지난 4월26일부터 한달동안 D국민학교등 10개국민학교 5천7백91명을 여행시키면서 총여행비 6천4백39만원가운데 약20%인 1천30만원을 학교별로 90만원~1백50만원씩 인솔교사에게 커미션으로 주었다는것. 【聯】

16세愛人살해 철면피 30代구속

【釜山】부산南部경찰서는 4일 趙圭鐵씨 (33·南區望美洞 협진아파트B동505)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이날상오7시께 南區望美洞 D여인숙209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애인 윤모양 (16·影島區東3洞)을 나이론 보자기로 목졸라 숨지게한뒤 자기집에 피신해있다가 붙잡혔다는것.

본처와 아들딸등 일가족 4명이있는 趙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된 윤양과 깊이사귀어왔었다.

趙씨는 최근본처와 이혼수속까지 끝냈는데도 윤양이 나이차가 많다는 이유로 함께살수없다고 하자 이에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聯】

「淫亂비디오」에 鐵槌

서울市警 만화가게주인등 14명立件

서울시경은 4일 동네 청소년및 고객들에게 음란비디오를 관람시켜온 서울城北區長位2洞68의141 스마일만화가게주인 朱英花씨 (37·女)등 다방·술집주인등 14명을 음반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테이프를 복사하거나 시중에 대여, 판매해온 60명을 불구속입건, 9명은 즉심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굿바이 이마누엘」「뜨거운사랑」「성욕」등 음란비디오테이프 1백74개, 비디오수상기 19대등 3백4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마일만화가게주인 朱씨는 지난8월3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1천5백원씩 받고 음란테이프를 방영해왔고 또 洪大義씨 (27)는 서울中區新堂1洞부강상가아파트720 자기집안방에 비디오세트를 설치해두고 1인당 4천원씩받고 고객들을 상대로 틀어주었다.

서울中區舞鶴洞28 동화여관주인 李鍾喆씨 (28)는 여관방에 설치된 컬러TV로 음란비디오를 틀어주고 숙박요금을 2배이상받아왔으며 서울冠岳區奉天4洞862의9 원다방주인 金鍾安씨 (35),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술집주인 尹錫瀚씨 (38)등도 음란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며 고객을 유치해왔다.

電氣시설 不良으로 感電 火災위험많아

【安東】安東시를 비롯한 義城·英陽·靑松등 경북북부지방 전기수용가 가운데 14.1%인 6천5백6가구의 전기시설이 불량해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 安東출장소가 올들어 8월말까지 관내 1개시, 6개군의 전기수용가 4만6천2백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기안전시설실태에 따르면 이중 14.1%인 6천5백6가구의 각종 전기시설이 제대로 안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聯】

8개工高 定員30% 校長추천 入學유도

【光州】전남도교위는 도내 9개 농업고등학교와 8개공고에 대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때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남녀중학생 우수졸업생을 이 해당학교교장의 추천을받아 무시험 입학할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4일 道교위에 따르면 지난달 문교부가 전국 市道교위에 통보한 내년도 실업계고교 신입생모집 요강에따라 우수남녀학생들의 실업계고교진학을 권장키로하고 진학생들에 대해서는 3년간 장학혜택을 주는한편 특히여학생에게는 과선택에 우선권을 주는등 졸업과 결혼후에도 계속 해당분야에 종사토록 유도키로 했다는 것. 【聯】

羅州군수등에 경고 소홀

【光州】전남도는 4일 퇴비증산운동을 소홀히한 백주원 羅州군수와 羅州郡山浦面이 동면면장등 2명을 경고처분하고 山浦面 산업계장 박영한씨를 직위해제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 전농가에서 벌이고 있는 퇴비증산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주민계도를소홀히해 퇴비증산분을 조성하지못한데 대한 책임을물은것이다. 【聯】

이웃마을서 亂動

住民18명에 令狀

【光州】전남珍島경찰서는 사소한 시비끝에 마을청년15명을 동원, 흉기를들고 70리길을찾아가 7시간동안 난동을부린 조근환씨 (43·珍島郡珍島邑雙井里)와 마을청년 김옥현 (23·珍島邑校洞里)등 18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조씨는 지난 2일하오3시께 珍島郡智山面深洞里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중 옆에서 새우잡이를하던 조순행씨 (55·珍島郡智山面素浦里)에게 새우를 달라고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조씨를4m깊이의물속에 넘어뜨려 1주의상처를 입혔다는것이다. 【聯】

總力安保 사진전 全南86만명 관람

【光州】향군全南도지회주최로 지난2개월동안 열렸던 향군총력안보특집사진전시회가 큰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4일 道지회에따르면 지난 6월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光州시내 각급학교를 비롯, 도내 26개市郡지역을 순회하면서 6·25당시 참상과 북괴의 잔악상등이 담긴사진 2백여장을 전시한결과 학생 36만7천여명을 비롯, 주민50여만명이 관람, 전후세대의 반공의식고취와 각계각층의 국가관, 안보관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것.

전시회기간동안 「6·25란」이란 50분짜리 기록영화도 순회상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聯】

5行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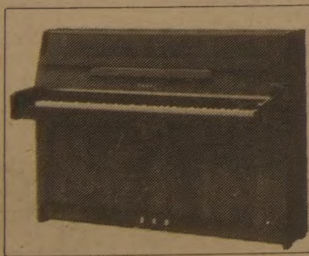
◆美문화원放火서류 大邱로
【大邱】부산지방법원에서유죄판결을 받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서류가 4일 부산지검에서 大邱고검으로 이송됐다. 【聯】

The 5th Anniversary Specials

★기 간 : 9월1일~9월30일

본사에서는 개업 5주년기념으로 올갠및 피아노 할인대매출을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및 신형 up right 피아노는 음악인들에게 인기리에판매중에 있사오니, 1 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 겠읍니다.

대표 윤 호 섭 올림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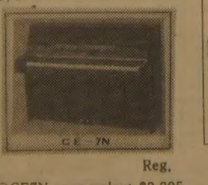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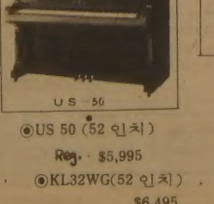
DX100 $2,395-REG
DX200 $2,995-REG

DX300 $3,4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Reg.
◉CE7N open walnut $3,395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US 50 (52 인치)
Reg. $5,995
◉KL32WG(52 인치)
$6,495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 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日本人을 똑바로 보자

언제까지나 그들「士氣의 祭物」이 될수는 없다

특별寄稿

血祭의 贖罪羊

金容雲
<漢陽大교수>

9월1일, 日本東京에서 소학교(국민학교)를 다녔던 나는 이날만 되면 기분이 나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이제 關東의 벌판에는 문화의 꽃이 피는 날이 왔다. 힘을 모아 재건을 기하자…』란 關東大地震의 災害를 되새기는 震災기념일의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다. 오랜만에 만나는 일본친구들은 나에게 반가와하기는 커녕 무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으례 다음과같은 말을 내뱉곤 했다.

『조센진이 샘에 독약을 넣고 죽은 일본인의 시체에서 금니와 금반지를 빼어갔기 때문에 죽창이나 삽으로 맞아죽는 벌을 받았다더군. 우리아버지와 형도 몹쓸 조센진을 몇사람죽였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데 조센진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는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조센진을 만나면 같은 행동을 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잔인한 면이 많다. 깡패사회와 무사단사이에서 행해지던 「血祭」라는것이 그 좋은 예다. 血祭는 싸움을 하기전에 포로나 인질을 죽여 자기집단의 사기를 올리는 의식을 일컫는다. 제2차 전쟁중에도 패색이 짙어지자 으례 포로 몇을 죽이고 血祭를 지내기도 했다.

일본인은일단유사시에결속을잘하는게특색인데, 두가지유형을보이고있다.

평상시에는 윗사람을 神으로 받드는 즉, 上三神의 생각으로 神 중심의로 결속하는 上向的 결속력이다. 천황중심체제도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위기에 부닥치면 「血祭」같은것을 통해 下向的인 결속력을 나타낸다. 關東대지진때 한국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운것이 후자의 가장 좋은 보기라 할수있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한 일본인의 글이 있다.

『지진과 그에 잇달아 일어난 화재로 완전히 쫓기어 피난열차를타고 東京에서 지방으로 가다가 어느역에 도착하니 일본군대가 장교의 지휘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군인은 칼을 빼어들고 기차의 지붕까지 가득찬 피난민중에서 조선인은 내리라고 외치면서 조선인을 골라 기차에서 내리게하여 우리 (일본사람)의 눈앞에서 총칼로 찔러 죽였다. 그때 일본군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그들의 비명보다 더 높게 피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한국인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었다』

일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양심적인 말을 하더라도 민족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곧잘그들 특유의 현재 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예사이다. 이와같이 형편에따라 자유로이 주장을 바꿀수 있는 일본인의 본성을 잘 이해못하면큰 실수를 범하기 쉽다.

역사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지난날 일본이 한국을 대하였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일관된 패턴이 역사의 거울에 비친다.

일본의 힘이 충만해지면 그 잉여에너지를 한국을 향해 공격적으로 쏟아버렸으며 반대로 위기를 맞이하면 한국인을 곧잘 「속죄양」으로 삼는 따위의 일이 그것이다.

豊臣秀吉의 일본통일 이후, 잉여에너지 처리는 壬辰倭亂으로 구체화 되었고 또 明治維新이후 축적된 그들의 에너지는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기에이르렀다.

일본인의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한국인은 지금까지 늘 대조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의 잦은 침략에 대한 군사 보복도 논의되다가 으례흐리멍텅하게 끝나버리곤 했던것이다.

신라제14대 儒禮王12년 곧295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실례중 하나. 「봄에 왕이 군신들에게말하기를 왜인들이 우리나라의 성읍을 자주침범하므로 백성들이 편히살수가 없으니 내 생각으로는 백제와 더불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너 왜국으로 쳐들어가서 아주 그나라를 없애는일을 꽈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 하니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데 원정같은 모험을 하면 도리어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백제는 거짓됨이 많고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욕심을 늘 가졌으므로 그들과 도모하는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자 임금은 그 말이 옳다 하여 왜구정벌을 그만두었다」

「三國史記」에 실린 위의 글은 신라가 일본을 치지 못한 까닭에 대하여 수전에 약하다는 것말고도 또다른 중요한 이유를 들고있다. 그것은 동족끼리이면서도 백제니 신라니 해서 서로를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구의 침략 임진왜란, 또 가까이에는 관동지진 당시 희생당한 한국인은 그 출신지방을 따져서 죽음을당한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일인데 적과싸울때조차 지방·파벌의식을 버리지못하는 한국인의 이 병적인 심리는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보도되었을때 예 그대로의 에누리없는 일본의 모습을 다시 보게되어 오히려안심(?)했다. 맥아더는 일본인을 보고 『정신연령이 12세 정도밖에 못된다』고 평했다 한다. 과연 주민 역사를 좋아하는 심사가 철이 덜든 어린이를 꼭 닮았다고나 할까. 그러나 조심할것은 그러한 왜곡된 역사로써 스스로를 미화하고 잔뜩 자존심을 추켜세운 뒤에는 으례 이웃민족에 대한 멸시와 폭행으로 이어지는것이 그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패턴을 인식하는것 못지않게 이에 대처할수 있는 확고한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의 횡포때문에 마지못해 겪어야했던 지난날의 수난과 좌절의 참뜻을 되새겨 보고, 또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필요하였던가를 따져봐야 할것이다.

식민지주의자가 과거의 피해자에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해도 반드시 그 뒤에는 검은 속셈이 있을 것이고, 말로는 사과한다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멸시할 것이 뻔하다.

우리 사회에는 「통곡의 인정」이라고 할 독특한 情의 세계가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가 슬픔을 당할때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통곡을 나누고 당사자의 슬픔에 동조하는 것을 情의 표시로 생각하는 풍조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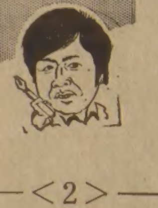
「나」의 가족, 「나」의 편에 대해서는 미친듯이 정을 쏟아놓지만 적 또는 넓게는 남을 대할때 그 반작용으로 이성을잃은 배척으로 나타난다.

진실한 힘은 상대에 대한 행동이 이성적으로 자각될때 발휘될 수가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적잖은 나머지 일본인은 아예 안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심판대올라야할 살롱文學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2>



東京에서 부른「미아리고개」

그림 鄭駿溶

27일 오전에 東京도립공원인 고마바(駒場)공원안에 자리잡은 近代文學博物館을 방문하였다. 사무국장인 오오꾸보(大久保)씨의 호의로 지하에 설치된 자료실을 둘러보았다. 은행의 금고를 방불케하는 튼튼한 도난방지 시설, 물샐틈없는 화재경보장치, 온습도유지 시설 속에 明治유신 이래의 각종 희귀본과 저명 문인들의 유품, 육필원고 등이 정연히 보존되어 있었다. 20만점에 달하는 자료들은 내내 내입에서감탄을 자아내게했다.박물관만이 아니라 도서관과 출판사의 성격까지 겸하여 희귀자료를 影印해서 싼값으로 일반에 널리 배포하고 근대문학의 연구를 돕는 그 사업은 오늘날 세계에서 대우받는 일본문학의 위치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부럽게 느끼는 것은 현재의 시설 그 자체보다도 일본인들이 가진 記錄性이다. 일본열도가 자주 겪는 지진이 일본인들의 기록성을 자극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서 천재지변으로부터 역사를지켜 나왔다고 할까. 말하자면 그같은 작은 기록성의 축적이 오늘의문학박물관을세우게만든힘일 것이다.

우리는 그간 일본의 지진보다 더 혹독한 내우외환의 험로를 걸어왔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과거의 역사마저 戰禍에서 기록으로 건지지 못하고 귀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잃어버렸다. 신문학 70여년의 역사를 쌓은 한국의작가로서 내가 가진 기록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芥川賞 수상 작가인 나까가미·겐지(中上健次)하고 월간지「新潮」에 실기 위한 문학대담을 가졌다. 2시간여에 걸친 대담의 내용은 일본의 어머니를그린 그의 작품「봉선화」와 한국의 어머니를 그린 내 작품「에미」를 중심으로 한 문학과 모성과의관계였다. 이를테면 한·일 두 나라의 어머니끼리 맞붙은 셈인데, 내가 그린 한국의 어머니는 강하지만 그 어머니를 대변하는 내 힘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의 수많은〈에미〉들께 죄송한감을 느꼈다.

대담의 끝부분에서 나까가미가 내게 한 이야기는 새겨들을 만한 인상적인 말이었다.

『오늘날 세계문학의 중심은 확실히 과거의 식민지가 떠맡아 이끌어가는 추세야. 그런 점에서 일본문학이 한국문학을 따라갈 수가 없지. 하지만 난 달라. 나는 일본 속의 식민지 출신이거든』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해 주고 싶었다.

『일본문학의 대오각성을 위해서 일본도 한 번쯤 한국의 지배를 받아 봤으면하는 생각은 없니?』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내귀에 과히 듣기 싫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실한 고뇌와 충실한 삶이 자양분이 되어 그 나라의 문학을 키운다고 볼때, 친구인 나까가미의 말에 확실히 일리가 있음을인정하면서 일단 국민생산 만달러의 일본이 잃어진 고뇌는 무엇일까를 혼자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미천한 부락(部落)출신임을 오히려 자부하는 나까가미가 제왕처럼 군림하는 무대인 신쥬꾸(新宿)의 유명한 골든街에 간것은 대담을 마친 저녁때였다. 그와 나는 그의 단골인 손바닥만한 술집들

사소한것도 記錄해두는 버릇은 우리도 느껴야할점

을 밤늦은 시각까지 차례로 훑으면서 4차, 5차까지 하였다. 그러다음 북상해오는 태풍의 영향인 장대비를 맞으며 어깨동무를 한채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우리는 비틀걸음으로 나까가미의 십팔번인「미아리고개」와「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고창했다.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비는커녕 오히려 길거리에서 만나는 똘마니들이 왕초인 나까가미를 보고 인사만 착실히 하는 것이었다. 누가 우러러보았다면 그때 백십킬로그람의 거구하고 어깨동무를한채 일본의 유명한 유흥가를 걸어다니는 육십킬로그램미만의 내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 그것이었으리라.

친구 덕분에 나는 이제껏 말로만 듣던 르네상스기의 살롱문화다운분위기를 골목가에서 실감할 수가있었다. 〈마에다(前田)〉니 뭐니 하는 옥호를 붙인 아주 소규모의술집들마다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를 지닌 마담이 있어 자기 주변에 각계의 예술가들을 모은것이었다.

그런 살롱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무명의 예술가가 어느날 갑자기 혜성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연륜을 쌓아 기반을 잡아 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살롱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나까가미가 어린 나이부터 드나들었다는〈마리까(茉莉花)〉라는 살롱에서는 마담이 한국의 윤모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설렁까지 준비한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꾸다(奧田)란 무척 인자하고 자상스런 얼굴을 한 할머니였다.

말하자면 그마담이 나까가미문학의〈에미〉인 셈이다. 넓지는 않아도 아주 고풍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마리까에서 우리는 새벽세시경까지 마시고 노래했다.

서울에서부터 묻어온 끈덕진 목감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모르게 본래의 실력 이상을 발휘해서, 문예지의 편집자들로부터 역시한국노래는 생동감이 넘친다는 칭찬과 함께 몇 차례 재청을 받는지경이었다. 이와같은 살롱의 분위기는 한국에서는 전혀 맛볼수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것이다. 일본문학의 한 특성을 형성하는 모체이며 구심점 같은 거라는 인상을 짙게 받았다.

그러나 바로 그런식의 살롱분위기가 일본문학을 나약한 성격으로 타락시키는 원흉이란 호된 비판을 나는 어떤 신문기자한테서 듣기도 했다. 살롱이 일본문학에 끼친 공과에 관해서는 지금쯤 단단히 따져볼 싯점에와 있는지도모른다.

어쨌든 나로서는 아주 재미 있는 체험이었다.

만약 일본식의 살롱문화가 우리한테도 생긴다면 우리 문학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까.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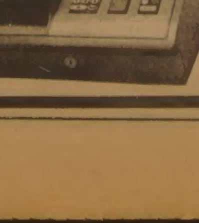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532-0602 김신우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성수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복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복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담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미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신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합.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주말 유경험자 Helper 구함
(남·녀 관계 없음) 낮12시~밤11시
1114 Yonge St.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GROCERY에서 Cashier 하실분과 HELPER
구함.(단, 유경험자 여자분에 한함)
전화 : 598-2546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점심시간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오전11시30-~오후2시30분 (3시간)
전화 : 757-6334

Shoe Maker(Finch & MacCowan Mall)
Helper 구함. (Full Time)
전화 : 291-8367(B)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쉼)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남자 스토아 헬퍼 Full Time.
남·녀 Part Time 캐쉬어 구함.
학생도 가능함. 625-1620(미시사가 지역)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매매

SERVICE STATION
2. BAY GARAGE-SNACK BAR.
Highway 10 North of Brampton
One Acre Corner Lot. $80,000.
Down Payment. Mr. William.
251-4656 Albany Real Estate Ltd.

Restaurant for Sale.
near the Christie Subway. Fully equipped.
Fully licenced under L.L.B.O.
Immediate Occupancy Reasonable Price.
Ask Miss Yen. 536-6769 or 532-7489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9월은 토요일만 오픈. 시간 12~6:00시
◉판매방법: 칼과 Box 준비. 직접 뽑아 가심.
◉채소종류: 배추, 여러가지 무 있음.
(열무김치·풋배추·국거리·저장류)
◉장 소: Eglinton과 HWY10 교차에서 서쪽으로 1마일 가면 Second Line있음. 북쪽으로 500m.
◉연락처: 622-5509

(1)Variety Store $109,000(스카브로)
(2)Variety Store $28,000(Finch & Islington)
(3)Coin Laundry & 건물 $159,000(Bloor)
(4)건물 : Bloor & Christie. $154,000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Business Opportunity
위치: Borough of York. 매상 대단히 양호함
번창한 곳에 위치한 최고의 여건을 갖춘 파일과 야채가게
좋은 리스. 꼭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Mr. Gim Gounelas 536-5600
Premore Real Estate Ltd.

발전성있는 가게임. 현재 주 3,200불
리스5년+5년. 전화 : 923-9948 Mrs. 정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0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Variety Store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타
Rent: $600. 전화 : 266-7833 Mr. Kim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2층살림가능.
전화 : 1-527-6974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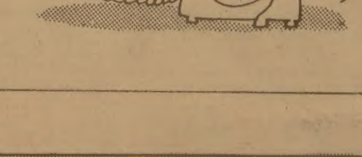
벤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좋은 가격으로 바쁜거리에 위치한 Variety Store. 주인 은퇴로 급히 팝니다. Call Mr. Messina
Cabot York Realty Inc. 781-6151.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다운 Town Mall안에 있는 가게를 일손이 모자라 급히 팔고자 함. 옷과Variety 겸함. (혼자서 운영가능)
전화 : 536-1914 (Mr. Yong)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집렌트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아파트렌트

단기·장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하실분.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편리한 여건임. 693 Bloor St. W.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앞)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방세 Two (힐×St.Clair)
One (Dundas×George.St)
Tuesday 226-2077. 763-3289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한규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의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숀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춘탁

새한칼라현상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